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7 1982년 6월 2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ne 2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UN 25 1982

한맘교육강좌서 새방향 제시

한글 또는 영어 한 언어만 강조말라

청중들, 언어교육에 과학적 자료등 요구

"한국인의 얼을 전승시키려면 한국언어를 습득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한국말만 강조한 나머지 캐나다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결여되게 해서는 안된다."

1백여 학부모가 5시간에 걸친 제3회 한맘교육강좌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19일 한인교육연구회(회장 조성준)와 한맘한글학교(교장 허영식)가 천주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한글교육과 한국인의 얼"강좌의 강사4명은 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특징·한글교육등을 다룬 반면, 청중은 현실적·구체적 해답을 요구,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찌른 느낌이었다.

이날 청중들은 한국말과, 필요성과, 부모의나라 한국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가? 언어가 인격형성에 어떤 경향을미치는가?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대해 얻어진 결론는 (1)자녀들에 지나친 한국말 습득 강요로 인한 정서적 부작용·사고력발달 지장등을 고려해야 하며, (2)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슬라이드나 지도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3)언어는 분명히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한국과 이곳 문화가 가지는 좋은점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한인천주교문화관에서 있은 모임의 강연은 "한국인의 얼"이라는 주제로 유재신(토론토대 강사)씨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토대학 교환교수 박동규(서울대소속=문학)씨, "가정에서 한글읽기와 글짓기"라는 주제로 이석현(본지 편집인)씨,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교육"주제로 조성준(사회사업가·스카보로교육위 근무)씨가 각각 담당했고, 사회는 식·칠드런병원 연구원겸 토론토대학 강사 구상회 박사가 맡았다.

첫 강사 유박사는 "한국인의 얼은 남의것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풍부하게 발전·승화시키는 「창조적 얼」"이라고 강조했다.

2번째 연사인 박박사는 "언어학습은 지식·감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한국문화의 사상은 신비주의적, 서정적, 내세지향적으로, 이같은 경향은 한국말(한글)이 비과학적·비체계적인 감각적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박사는 한국인의 특징으로 현세적인점을 지적한 반면, 박박사는 내세지향적이라고 지적, 견해가 달랐다.

3번째 강연한 이편집장은 "국어와 민족문화를 계승못한 민족은 정서적「무국적자」"라고 말하며, 한글읽기와 글짓기 지도의 구체적 방법을 소개했다.

강연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교포는 앞으로는 이런 강연회가 한국의 얼이나, 문화의 특징을 나열·설명하기보다는, 당장 당면한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통계등 과학적 자료에 입각한 구체적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이민보다 역사가 앞선 다른 이민족의 선례들을 비교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한글교사는 이민 1세들이 한국문화에 관해 아는점이 없다는 점, 모국문화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깊은 모색이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한글교육강연회의 한 모서리
왼쪽 두번째 구상회(사회자)·윤택순·유재신(강사)·조성준(강사)

社說 교민 서명운동

—한인연합회·승공협회가 벌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는 최근 전국규모의 두가지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하나는 한인연합회가 한인이민 증가를 위해 1만명 서명의 신청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운동이고, 다른하나는 10여만명 북한정치범 석방운동이다.

먼저 착수한 연합회의 운동은 이민길이 거의 막히다시피한 현실정에 대하여 교포들의 뭉쳐진 의사를 연방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이민의문을 열도록해보자는 시도이다.

캐나다는 매년 전세계적인 이민 영입쿼타를 설정하고, 국가별 숫자는 정하지 않으나 특정국민의 이민사무소와 주재이민관이 숫자를 조절, 간접으로 이민 영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국인에게는 행정적으로 좀더 까다롭게 대할수도 있다.

우리는 캐나다가 비교적 모범적으로 사는 우리 한인계 이민을 행정적으로 억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물론 불황·실업율등 경제문제가 심각하나, 여전히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바에야 우리 한인계에 대해서도 인색치 말라는 것이다.

부정담배 관련자,최중화사건등 잡음있는 교포도 있으나, 대다수 한인은 정직하게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민족은 범죄자가 없는가?

권리행사와 이민집단으로서의 공동이익추구등 뭉쳐진 힘이 때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5만명도 안되는 숫자로는 말발이 안서고, 최소한 10만명은 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마침 전두환대통령이 오는 8월하순 캐나다를 방문한다니 한국정부로서는 "이민을 더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캐나다정부나 한국정부나 울지않으면 젖주지 않는 법이다. 교포들은 서명운동을 먼산의 불로만 보지말고 이에 적극참여 하기를 촉구한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정치범 서명운동에 따라 캐나다한인승공문화협회는 토론토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북한8개 수용소에서 지옥생활을 하는 10만5천명 정치범들을 구출하자는 이 운동은, 1천만명 목표중 이미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는 각교회·한인단체를 중심으로 서명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되는 서명서를 보고 김일성씨가 긍정적반응을 보여줄리는 없겠으나, 1천만 동족의 의사를 알리고, 그 심리에 선의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일부인사들이 보듯 무의미한 행위만은 아니다.

이 서명운동은 비록 100%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한국정부의 정치성 개재…"운운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목적이 인도적이므로 "한국에는 정치범이 없느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교민들은 적극호응함이 바람직하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社告

이민사 자료수집

본사 병설 한인이민사연구실(실장 이석현)은 캐나다전국 한인이민사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 비치함으로써 이땅 한인이민사 정립에 뒷받침이 되고자 전국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있읍니다.(당장 이민사를 기술하는 것은 아님).

이 연구실은 전국의 교포단체,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이용의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각지역의 해당자료들(행사안내서·문화행사 초청장·프로그램·포스터·기관지·동인지·주소록·동창회지·학술발표운동∞아무리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이라도)를 보내 주시는 친절을 기대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에는 별로 쓸모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료실에 모아 비치하면 장래에 소중한 자료로 빛을 발할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협조(자료송부·참고조언)를 부탁드립니다.

(1)개인에 관계된 자료−스크랩북·일기 회고록·가족사진·본국과 이민자 사이의 편지.
(2)사회단체에 관계된 기록−회의록·선전문·재정보고서·단체약사·단체성관·회원명부·보도자료.
(3)이민안내관계 책자.
(4)교회관계 기록−세례·혼인·장례식·회보·기념간행물·빌딩기록·사진·주일학교 관계기록·연차보고서·재정보고서·교인명부·교회각소회의 기록·설교집등.
(5)신문들(캐나다엔 지금까지 11개 한글신문이 있음)
(6)구술인터뷰−녹음 테이프등.

◉자료접수처 :
한인이민사 연구실
The Korean Immi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1−(416)533−2361

한국일보사

60억달러차관 새 국면

한국, 제안 내놔

(서울22일=연합)이범석 외무장관은 22일 주한−일본대사 도시카조·메다와 만나, 60억달러 차관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견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외무부 고위관리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방위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것을 이유로 60억달러 무이자차관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4∼15억달러 정도를 싼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협상하라고 제안했었다.

이 문제는 전두환대통령 취임이후 가장 주요한 한·일간의 정치협상문제로 등장했다. 지난 6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정권의 생명을 내걸고 한·일협상을 벌여 일부국민의 반대속에 성공시켰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승공협회의 최씨 북한방문 비데오

관람자 몰려 같은 영화 2번 상영

토론토한인회관을 꽉메운 200여명 교민이 지난 19일 밤7시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가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상영한 최덕신·최홍희 북한방문 기록영화를 관람했다.

수편의 대한뉴스및 과거 군장성으로 공화당치하에서 고관을 지낸 최덕신(전 외무장관·천도교 교령)과 최홍희(전 말레이시아 대사·논산훈련소장 역임)의 북한방문에 따른 북한기자 돌가의 인터뷰 장면 비데오에 이어, 한국의 최근작 영화 명랑청춘물「달려라, 풍선아」가 상영됐다.

두 최씨의 인터뷰중 발언은 북한을 세계최고의 낙원으로 왜곡평가하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김일성을 사상 유례없는 영웅이며, 영도자라는 극찬으로 일관하여, 그들의 양식을 의심케 했다. 관람자들은 이같은 그들의 행동에 크게 격분했다.

한편「달려라 풍선」은 서울의 대학법과에 합격, 유학차 상경하는 남주인공 두철군과 여대생 달숙양이 상경열차에서 만나 교제·연애과정을 건전하고, 명랑한 진행으로 흥미있게 엮어 나갔으며, 젊은이들이 겪는 애환과 하숙집여주인(여운계 분)으로 별명「대비마마」와 7명의 하숙생들 사이의 인정미 넘치는 에피소드, 패기와 솔직성으로 고루하고 완고한 장래의 장인 달숙양의 부친(최남현 분)을 설복하는 대목, 젊고 유망한 의사의 등장으로 발생한 애정의 삼각관계등 가벼운 터치로 스피디하게 진행시켜나간 성공작이다.

관중이 너무 많아서 장내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주최측은 밤이 깊었지만 양 최씨의 북한방문 영화를 다시 방영했다.

한국 금값 최하

1돈중 $53.00

(서울22일=연합)한국의 금값이 최근 수년간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의하면, 22일 현재 99%순금값은 1돈중(3.75그램) 3만9천원으로, 최근 4∼5년간 4만원이하로 떨어진것은 처음이다. 80년1월 한때 금값은 한국역사상 최고 7만7천원으로 올랐었다.

한편, 이날 런던시장의 금값은 1온스당 미화 297달러로 한국의 1돈중으로 계산하면 한국보다 14달러가 낮은 미화 38.61달러, 한국금값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는 22일 노바·스코시아은행의 금피가 온스당 미화 299달러였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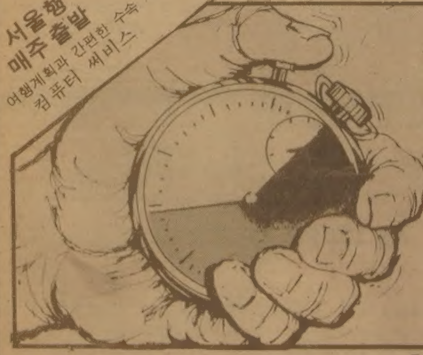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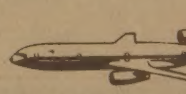


출발에서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535-6004 535-8801
SEOUL TRAVEL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293-9970
IATA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다이아나 옥동자 정상분만

왕위 계승 서열 2위, 7Lb. 1½Oz.

(런던)영국황실의 대를 이을 옥동자가 태어났다.

찰스황태자비 다이아나(20)는 21일밤 9:03분(토론토시각 하오4시 30분) 런던의 세인트·매어리병원에서 건강한 황태자를 정상적으로 분만했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

7파운드1.5온스의 아기는 부친 찰스황태자(33)에 이어 왕위계승 서열이 2번째이다. 서열번호 3번째는 앤드류왕자, 4번째는 에드워드왕자, 5번째는 앤공주이다. 아기 이름은 부무가 서로 합의하지 못해 짓지 못했다.

이들은 작년 7월 결혼, 약11개월만에 득남한 것이다.

세자가 탄생되는 순간 터트리는 41발의 축포는 22일로 연기됐다.

한편 다이아나황태자비는 아기의 대부(Godfather)로 삼촌 앤드류왕자를 지목했다.

다이아나는 "포클랜드전쟁에 참가한 앤드류왕자의 용기를 높이 산다. 용기의 사람이 바로 아기의 대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황실은 전통적으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대부를 왕실가족중 연장자에게 선정했다.

'88 올림픽 대비 TV 센터 설립

(서울22일=연합)한국정부는 88서울올림픽에 대비, 세계방송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한국체신청은 이 센터가 올림픽기간동안 모든 기존방송국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폐쇄회로, 복합음향시설등을 갖출 이 방송국은 올림픽기간중 전 세계에 중계할 세계 각국서온 TV취재팀을 위해 필름제작, 편성, 위성중계시설을 써비스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지난4월 런던 그랜드·내셔널 경마장에 나타난 찰스황태자 부부. 다이아나의 산갈이 높은 배에서 옥동자가 나왔다.

◆가족상을 탄 이인조 할머니 가족(23명)

홍겨운 장수무대

런던노심에 핀 동심

(런던=강상국지국장)런던한인회(회장 배동범) 청소년부 주최, 노인들을 위한 장수무대가 지난 5일 런던 웨스턴온타리오대학에서 열려, 150여명 교포가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냈다.

홍원기청년회장 사회, 장복인씨 진행으로 마용문·정갑송군의 "창"과 만담이 열띤 박수를 자아냈고, 흥에 겨운 할머니들이 무대에올라 덩실덩실 춤추며, 오랫만에 이민생활의 고달픔을 해소했다.

특히 김경제씨 모친 임정재할머니는 음치로 노래를 불러 "꾀꼬리상"을 탔다.

수상자는 거의 모두가 할머니여서, 할아버지들은 내년 장수무대를 벼르고 있다.

장수상 : 석운석할머니
다복상 : 김정순할머니
인기상 : 서언년할머니
다정상 : 홍춘모·이숙자 부부
꾀꼬리상: 임정재할머니
장려상박: 박대례할머니
가족상 : 이언조할머니
노력상 : 백병전할머니

이날 홍성인씨의 금반지 기증을 비롯, 아래 인사들이 상품을 기증했다.

박옥규·마광훈·하광용·조용주·런던한인회·김성홍·정일송·원병흡·한국식품·강상권.

어린이 6명 졸업

씨알학교 5~6년다녀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는 지난19일 82학년도 종료식과 함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한 학생은 김영희·정소은·박경희·이진희·이선희·강지원으로, 이들은 5~6년간 씨알학교에 다녀 한글등을 배웠다.

종료식에서는 1년개근상과 우등상도 수여했으며, 여름학교 축구부 결단식도 아울러 가졌다. 씨알여름학교는 7월5일~8월13일 열린다.

이날 개근상·우등상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개근상 :
이은성·박준호·이혜성·조앤·박경남·박경희.

◆우등상 :
◎유치반—백헬렌·채민경·고원호
◎2반 —이정희·이성미·정귀영
◎3반 —한지선·백제인·오현희
◎4반 —김은희·박준·이토로
◎5반 —졸업생전원

병원 근로자 8명 로타리오복권 당첨

74만달러를 나눠

토론토 마운트·시나이병원에서 운반인으로 일하는 6명과, 우편발송자 2명이 지난 19일(토) 로타리오(Lottario)추첨에서 1등으로 당선, $743,600을 받았다.

$92,950씩 나눠 갖게된 이 행운의 사나이들은, 1년이상 1주일에 $2씩 돈을모아 16장의 토타리오 티켓을 샀고, 티켓에 기입하는 숫자는 각자 2장씩 맡아서 적었다.

당첨티켓은 이들중 자신토·라자가(32)가 적은 숫자에서 나왔다.

이 8명중 절반은 당첨금으로 집을 사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토타리오 복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의 윈타리오(Wintario)에 1등으로 당첨, $10만을 탄 스카보로의 가정주부 베네사·트노브레가(26)는 당첨금은 당분간 은행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집을 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인회 야구대회

O.B. 팀및 대표팀전

토론토한인회체육부는 7월31일(토)상오8시30분 코로네이션·파 야구장에서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연다.

시상은 아래와 같다.

대표팀:1~3등, 개인상으로, 최우수선수상·피처상·타격상·미기상·감투상.

O.B팀:1~2등·최우수선수상·미기상·감투상.

경기종목은 30세이상의 O.B팀전와, 대표팀 대항전 이다. 참가비는 팀당 $60.

경제특집 지상 FORUM ⑧

증권시장에서 본 경기변동 II

강상욱(메릴린치증권회사 근무)

◇강상욱

이자율하락 금년 후반에나 기대

경기는 원자재, 주식,부동산순으로 회복

지난호에서 본것처럼 북미경제가 통화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은행이자율의 변경이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이자율이 내려와야 경기가 회복된다. 이자율의 추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지만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이자율은 이번9월을 절정으로해서 겨울부터는 내려 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이유는,

1)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사용했는데,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이상 고이자정책은 쓸 필요가 없고,

2)미국의 경우 실업율이 1%씩 증가함에따라 실업수당으로 년 300억불이란 추가 부담을 해야하며, 경기후퇴에 의한 기업이윤의 하락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며(재정적자),

3)금융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려쓰는 기관이 바로 연방정부인데, 고금리정책을 씀으로 과다한 이자지불을 연방정부가 원할리 없고,

4)이자가 낮은 상태에 있다가 1년 정도 고이자 정책을 썼다고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처럼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고이자정책을 쓴다면 많은 기업이 도산, 공황(Depression)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더 이상 고이자정책을 쓸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당장 이자율이 내려오지 않고 겨울부터 내려 올 것이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1)미국정부의 회계년도가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9월에 끝난다. 따라서 회계년도 마지막 분기인7월에서9월사이에는 예산적자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돈의 수요가 늘면 이자율은 내려 올 수 없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다.

2)실업율이 높으면 재집권이 어려움으로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반 2년은 고이자정책을 쓰더라도 후반 2년째 부터는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어 왔다. 따라서,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차기 선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이 또다시 일어나더라도 실업율을 줄이는데에 주력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렇다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그러한 주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1)물가는 잡았지만, 기업활동의 저하로 조세수입의 막대한 차질과 고실업율에 의한 실업수당의 추가지불등으로 예산의 적자폭은 점점, 더 커져, 정부가 더 많은 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이자의추가 지불을 가져와 돈을 계속 더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 돈의 수요가 있는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2)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1973-5년 경기후퇴때 국민의 저축율이 소득의 10.5%인데 반해 현재의 경우는 5%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흘러 들어오던 막대한 오일달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유국의 일일 생산량이 최고3,200만 배럴에서 1,600만 배럴로 반감, 산유국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할 돈도 많이 줄었다.

이상의 상반된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이자율이 이번 겨울에는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한 연방금융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가 설정해 놓은 유통통화의 증가율이 년 4~5.5%를 어느 정도 고수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책적으로 이 증가율을 낮추지 않는한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면에서 볼때 수요가 상당히 강함으로 이자율이 종전처럼 10%이하로 내려오기란 어렵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우를 주로 본것은 캐나다의 미국경제의존도가 크고, 캐나다는 독자적 통화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때문이다. 캐나다의 경기회복은 일반적으로 미국경기회복보다 6개월정도 늦어진다.

'현재 캐나다는 화폐가치의 하락을 막기위해, 또다른 면에서 고이자 정책을 써야함으로서 미국경제가 내년 봄부터 회복을 한다고하더라도 캐나다 경제는 83년말쯤 회복된다고 본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의 투자가 바람직한가?

경기회복의 징조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이 금·은·구리·목재등 산업용 원자재들이다(Commodity Market). 이유는 기업이 경기회복의 징조를 가장 먼저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움직이는 것이 주식등 증권계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55하던 은이 $5.40이고, $1.40하든 구리가 57센트로 5년내의 최저수준들을 기록, 계속내려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때 이들에 대한 투자로 돈을 벌어, 부동산에로의 이전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의 선택인 만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계속 추세를 연구분석하여 가장 싼값에 무엇이든 사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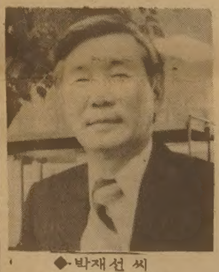
(편집자주: 불황에 관한 경제특집은 전문가의 기고를 끝내고 다음호에서 결론을 맺는다.)

—<야구상식>—

소프트볼의 연혁과 규칙 5

"규칙위반외 심판판정은 번복될 수 없다"

박 재 선(리틀야구 진행위원장)



◆박재선 씨

◆인플레이인 경우(9-2)

1)각회마다 투수가 공을 가지고, 투수판에 있을때, 심판원이 "플레이볼"을 선언시.

2)볼이 떼드되고, 압필플레이가 있을것이라고 심판원이 생각하고 있을때, 투수가 공을 가지고 투수판에서 8피트이내에 있을때 심판원이 "플레이볼"을 선언시.

3)인휠드후라이룰이 적용되고 있을때.

4)훼어볼이 내야수를 통과 또는 탓치한후, 훼어지역내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게 맞쳤을때.

5)훼어볼이 휘울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마쳤을때.

6)타구 또는 던진공을 야수가 수비를 부당하게 할때 주가가 저희들이 당연히 가야할 베이스에 도달하였을때임.

7)앞에 있는 주자를 앞질러갔기 때문에 주자가 아웃당했을때.

8)주자를 방해했기때문에 "노플레이"가 되어지는 동안 플레이가 끝날때까지는 인플레이이다.

9)주자가 아웃되기전에 베이스를 탓치함으로서, 베이스를 가질 권리를 얻었을때.

10)주자가 야수가 가지고 있는 공에 당장 탓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베이스파—스(베이스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직선에서부터 3피트 이내의 지역)를 벗어난 지역을 뛰어갈때.

11)주자가 태그될때 또는 포스트아웃 될때.

12)경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때 주자가 다시 베이스에 돌아가서 베이스를 탓치하는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원이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할때.

13)압필플레이가 주장되여지고 있을때.

14)후라이공이 합법적으로 받어졌을때.

15)던진공이 공격측 선수, 코치 또는 심판원을 맞쳤을때.

16)4볼이 선언되어 1루까지 안전하게갈때.

17)3스트라익을 선언할때.

18)휘울팁을 합법적으로 받았을때.

19)투수가 와인드압 또는 백스윙하는 도중 공이 미끄러져나올때.

◆심판원의 장비(10-1)심판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심판원의 교체(10-5)심판원이 부상 또는 병으로 심판보기 힘들게 되기전에는 상대방팀의 동의를 얻어서 심판원을 경기중에 바꿀수 없다.

◆심판원의 판정(10-6)심판원은 규칙에 위반된다고 확신되는것을 제외하고는 심판원의 정확도에 관계되는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휘울이냐 아니냐, 아웃이냐 아나야,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누구가 합법 불법, 주자가 베이스 탓치 여부, 인휠드후라이 여부, 인터훼렌스 여부등.

◆심안원의 씨그날(10-7)

1)볼과 스트라이크의 카운트를 할때 볼을 먼저 부른다.

2)훼어볼일때는 그의 팔을 다이아몬드의 중심을 향하여 펴고 펌프질 모손을 한다.

3)인휠드후라이 일때는 오른쪽팔은 머리위까지 올린다.

◆경기정지(10-8)

1)투수든가 타자가 정당한 이유로 자기위치에서 떨어질때는 심판원은 경기를 정지시킨다.

2)심판원은 경기진행중이든가, 투수가 그의 와인드압을 시작한후에는 타임을 부르지 않는다.

◆항의 통지(11-4)항의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는 다음 투구가 있기전에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항의라함은 심판원의 오심을 본부에 항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12-7)경기일람표에는 다음순서대로 기록한다.

1)각이닝별 득점및 총점
2)타격득점수및 타자
3)2베이스 타자
4)3베이스 타자
5)홈런 타자
6)휘생비구 타자
7)다블플레이 참가선수
8)투라플플레이 참가선수
9)각투수별 4볼 허용수
10)각투수별스트락아웃의 수
11)각투수별 안타허용수
12)승자투수명
13)패자투수명
14)경기시간
15)심판원및 기록자이름
16)도루수및 그 선수
17)휘생반트
18)투구에맞은 타자명및 투구명
19)각투수별와일즈핏치수
20)각포수별 패스볼 수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션파크

대광고교 우승

고교동창배구 4팀 참가

19일 보이드·컨서베이션·파에서 열린 제4회 고교동창배구대회에서 대광고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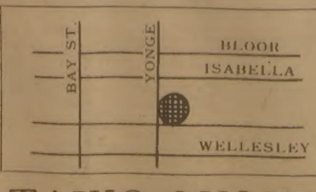
우천에도 불구, 상오11시에 시작된 배구대회는 주최측인 서울사대부고를 비롯, 경복, 대광, 성동 4개팀이 리그전을 벌였다. 경동고교도 이날 참석했으나, 인원이 모자라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복고교팀은 선수들이 대부분 30세미만으로 우승이 예상되었으나, 대광고교팀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굴복, 패배했다.

내년 주관자는 경복고교이다. 작년도 우승팀은 사대부고였다.

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1등 : 대광
◎2등 : 경복
◎3등 : 성동

江戸前 太鼓寿司
어제오신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요.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IATA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암은 음식에 많이 좌우"
지방질(FAD)과 소금 나빠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방질과 소금으로 가공되거나 절인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미국과학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말한다.

2년동안의 연구조사결과는 또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특히 흡연자인 경우)을 당부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식이요법(음식조절)과 암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암에 걸린 사람중 40%의 남성과 60%의 여성이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었다.

"일반적으로 암은 유전적인 차이에서보다 습관, 음식, 관습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것같다. 그러므로 암은 예방가능하다"고 조사원들은 결론지었다.

이 조사가 추천하는 식이요법 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질에서 섭취하는 열량은 매일 섭취하는 총열량의 30%이내로 줄여야 한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은 고기의 기름, 낙농제품, 식유(쿠킹-오일)등으로 일상 하루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총열량(칼로리)의 40%가량을 차지한다.

과일, 채소, 곡류를 매일 섭취한다. 특히 비타민A와 C가 많은 오렌지, 그레입프룻, 진녹색의 채소, 홍당무, 겨울스콰쉬, 토마토, 캐비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및 브러셀·스프라웃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소세지, 훈제(Smoked)물고기, 햄, 베이콘, 볼로냐, 핫독등 소금으로 절이거나 훈제(그슬음 냄새가 남)된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다.

●술은 적당히 마신다.

이같은 연구조사결과에 대해 미국육류연구소측은 "특정음식물이 암 발생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자료를 가지지 못한 과학원측의 연구조사는 국민을 오도할 여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캘리포녀대학교의 실험생물학자이며 본 연구조사팀의 위원장인 클리포드·그롭슈타인 박사는 암과 음식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란 쉽지않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암은 음식먹는 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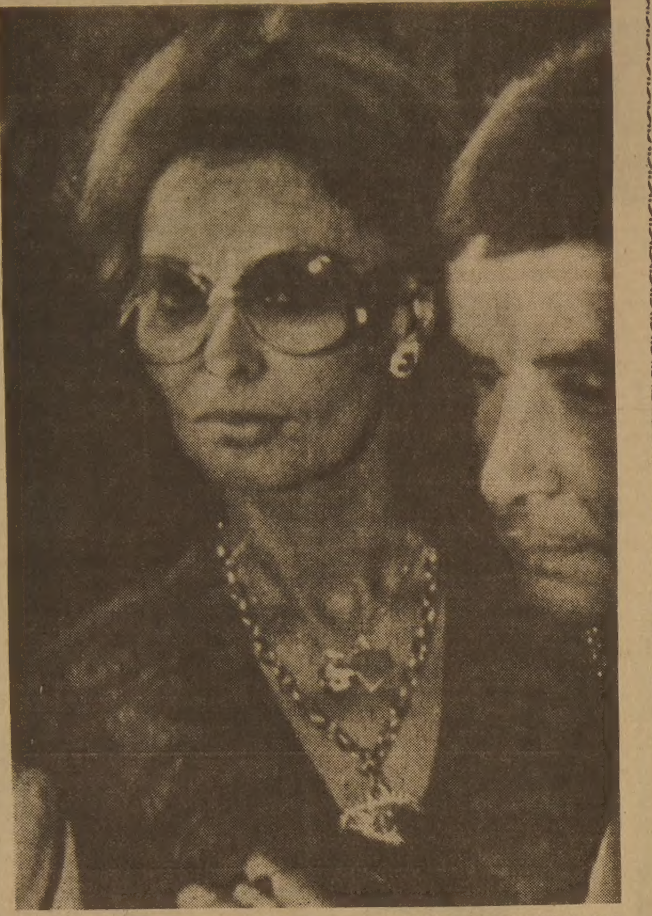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암은 죽음이나 세금처럼 필수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전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교민동정

◆박영물=토론토·도미니온은행 스파다이너×아드레이드지점 대부주임인 박씨는 16일 아침 첫 아들을 얻었다. 미시사가종합병원서 태어난 아들 저스틴(Justin)과 산모 정원여사는 모두 건강.

트루도 수상 아들과 같은 이름의 저스틴은 8파운드13온스(약 4Kg)나 되는 큰 아기였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택스 보고를 속이다가 30일간 교도소에 갇혔던 소피아·로렌이 사진작가에 관한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 사진작가들은 로렌이 철창에 갇혀있는 모습을 찍은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4만8천달러에 팔았다가 사기죄로 잡혔다.(로마)

제5계절
"스테그플레이션"

이수신 (외환은행 전무)

◆이수신씨

최근의 경제상태를 흔히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경기후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특이한 경제현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치유하기 어려운 공통된 중병이다.

더구나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은 서로가 상충되는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각각 상극되는 시료를받지 않으면고칠 수 없는 원인들을 갖고 있다. 즉 경기후퇴를 치유하는 약을 쓰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은 더욱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쓰면 경기후퇴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은 두가지 원인을 다같이 다스리는 수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세계는 이런 묘약을 발명내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 경제학의 약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요사이 경제학계에서는 경기후퇴쪽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고치는 소위 한약같은 약품처방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것 같다. 결국 한약같이 몸도 보호하면서 병균도 없애고, 환부도 도려내는 처방이 나올때까지는 각국은 아픔을 참는 수 밖에 없다. 아픔을참자니 몸의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픈쪽과 멀리떨어져 있는 부분(소위 고소득층들)은 별로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환부와 가까이 있는 부분(소위 저소득층들)은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정도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데모도 해보고, 호소도 하지만 묘약이 발명되지 않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결국 모든 불평은 위정자 앞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고, 특히 한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들은 비난의 모든 화살을 맞을 수 바에 없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위로는 야당다수로부터, 아래로는 어린 아이들까지 재무장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느냐는 야당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함부로 내릴수 없는 캐나다경제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무장관은 실로 어려운 사람이다.

다행히도 그의 주변에는 중앙은행총재를 비롯해서 각료의 다수가 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덜 외롭게 보이고 있다.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한 후유증(더욱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인플레이션쪽이 경기후퇴를 치유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환자는 결국 죽고 만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입안가들은 경기후퇴가 다소느리게 치유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뿌리깊은 병을 이번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끼는것 같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은 참지 않으면 안된다. 참는다는 것은 결국 옛날보다 만족이 감퇴된다는 뜻이다.

만족을 감퇴시키기에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상반기까지의 세계적인 고도성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문명의 첨단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러한 물질문명의 첨단에서 다소 후퇴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더구나, 어려운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각자가 기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채,

예를들면, 캐나다사람들은 아무도 임금의 삭감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다. 휴가의 감축에 대해서도 협조적이 아니다. 생산성의 향상에대해서는 생각조차 않는다. 단지 옛날보다 더욱많은 보수에, 더욱 짧은 노동시간에 더욱 많은 향락을 추구하려고 할 뿐이다.

인간의 만족에는 한이 없다고 한다. 이 만족은 극대화시키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두세번의 경제이론상의 혁명이 있어서, 이런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소위 아담·스미스의 자유경제이론과, 케인즈의 공황타파 이론은, 이러한 인류의 만족 극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의 경제현상은 또다른 경제이론의 혁명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 전기가 아닌가 생각들게 한다.

어서 훌륭한 경제이론의 혁명이 나타나 경기후퇴도 없애고, 인플레이션도 없애서, 1970년상반기의 고도성장시대로 진입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회, 특히 각국의 재무장관들의 간절한 소원일 것이다.

도전이 있어야만 역사가 발전한다는 토인비의 말대로, 시대가 새로운 경제이론의 출발을 가져왔으면 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소원이기도 하리라.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

어떤 情事 ⑫

달빛 받은 그녀의 육체는 銀魚처럼…

그는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티셔츠 자락을 양쪽에서 움켜쥔다음 그것을 뒤집어 벗겼다. 그녀는 벗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잡아보았지만 그 힘은 너무도 미약했다. 브래지어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상반신은 단번에 노출되었다.

관능의 노예가 되어 부산까지 내려와 낯선 사나이의 품에 안겨 춤추고 술 마셨던 그녀는 젖가슴이 노출되는 순간 갑자기 겁이 더럭났다. 비로소 자신의 입장을 깨달은 것이다.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안 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일 날거야. 안돼. 남편이 알면 난 파멸이야.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의식은 관능의 유혹에 밀려 물거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너무 취해 몸이 말을 안듣는데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남자의 손길을 막아낼힘이 없었다. 그는 입과 손으로 거침없이 그녀를 애무했다. 그러는 사이 아랫옷까지 모두 떨어져나가고 말았다. 그녀는 수없이 안된다는 말만되풀이했다.

사나이는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말할줄모르는 개처럼 충실히 그녀의 육체를 애무하기만 했다.

밖에는 달빛이 아름다왔다. 눈부신 달빛이 해면에 부딪쳐 부서지고 있었다. 불을 끄자 달빛은 창문을통해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의 하얀육체가 달빛을 받아 은어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밀어낼수록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억세고, 억세면서도 섬세했다. 그의 손길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노리개처럼 놀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철두철미 짐승 같았다. 그의 짐승같은 행동에 그녀는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있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의 인간적인 유희를 그녀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보다는 인간의 탈을 벗은 짐승같은 유희에 더 매력을 느끼고있었다. 그런점에서 남편은 잠자리에서의 매너가 너무 점잖고 인간적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지식인임을 의식하고 있는듯했다. 그의 엘리트의식은 너무도 강해 아내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그것으로 철저히 지배하려고했다. 그는 섹스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길뿐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는것같은 인상을 풍기고있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내의 육체를 달래주려고 자기딴에는 애를 쓰는 체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자체를 역겨워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치르고나서 녹초가 된 몸으로 한숨을 몰아쉴때 분명히 그런 기미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섹스야말로 그에게는 고역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장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뻔질나게 출장을 간다. 남편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는데야 아내로서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자신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을 쓰게된 것이다. 정욕이 강한 여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수한 남성들과 간음했다. 그중에는 외국 배우들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다. 그러한 마음속의 간음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나이는 그녀를 창가 위에 올려놓았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세우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가 왜 자기를 창가에 올려놓았는지 궁금했다.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병 꺼내가지고 왔다.

「축배를 들어야지.」

그는 중얼거리고나서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다 맥주를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보처럼 웃었다. 가슴을 타고 흘러내린 술은 허연 거품을 남기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朴 男 그림

「바바라」에 물으세요

「開業祝賀」꽃 보내는 관습이 없어
직장上官이 喪妻했는데…電話나 카드로조의
女性이 음악회同伴제의—선뜻 받아도 OK

◆필자 : 바바라여사

○문: 저는 봉급장이하는 것이 지겨워서 최근 비즈니스를 하나 차렸읍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저희 직장에 있던 친구들이나 동네 이웃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마음의 표시가 없군요. 저는 아주 실망하여 「캐나다인심이 이런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샤와 박〉

●답: 아주 잘못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친구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화환같은 것을 보내는 관습이 없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때 「개업축하」로 꽃을 보내주는것을 보고 얼떨떨했읍니다. 꽃은 장례식이나 결혼식때에 보내주는것이 북미에서는 일반관습으로 되어있읍니다.

귀하의 가게에 친구들이 들리지않는 것은 「그랜드 오프닝 파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업파티를 기다리고 있을거예요. 그때 모두 몰려와 축하를 해줍니다. 초청장을 보내세요. 좌우간 이곳 생활은 파티의 연속이죠. 작은 규모라도 파티를 베푸십시요.

○문: 직장에 있는 윗사람이 부인을 졸지에 잃었읍니다. 이때는 뭐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초청장도 안왔는데 장례식에 참석해도 실례가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스카보로 정석영〉

●답: 직장에서 그분을 만나면(만나지 못하면 전화로)『I was very sorry to hear about your wife』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표시하고 싶으시면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십시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꽃가게에 전화를 걸어 귀하의 크레딧카드넘버를 일러준후 부탁하면 됩니다.

또한 방법은 카드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켓에 가면 카드코너에 「Expressions of Sympathy」라는 난이 있읍니다. 그 카드를 집으시면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지들이 가는 것이 관습입니다. 직장에서 아는 정도로는 가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실례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환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 「자선사업에 쓰겠으니 꽃말고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단서를 붙이는 케이스도 있죠. 그때는 성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 저는 총각입니다. 컴퓨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옆방(같은직장임)의 캐네디언여성과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친해졌읍니다. 어느날 이 아가씨가 『음악회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저는 좀 놀랐읍니다. 이 아가씨가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인가. 만약 데이트를 희망한다면 이런 경우 남자가 무엇을 부담해야 하는가. 여자쪽에서 초청했으니 남자는 이번에는 가만있고 나중에 답례초청을 해야되는가 등등…. 이곳에서 저는 한번도 데이트를 못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성들이 데이트비용을 거의 떠맡는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요.(노스욕 김영일)

●답: 귀하께서 오히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그녀의 제의를 선뜻 받아 들이십시요. 그리고 저녁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상대방은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귀하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상대방이 심각한 데이트를 신청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데이트를 신청했다면 「데이트」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그때 그녀와의 데이트가 마음에 안들거나 주저되면 부드러운 이유를 대고 거절하십시요. 선을 분명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물우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쌍방울표 메리야쓰
OPENING BIG SAL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는 웨스톤 MALL내(휜치×웨스톤)에 쌍방울 메리야쓰를 개점하고, OPENING SALE을 실시코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일차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Mrs. 윤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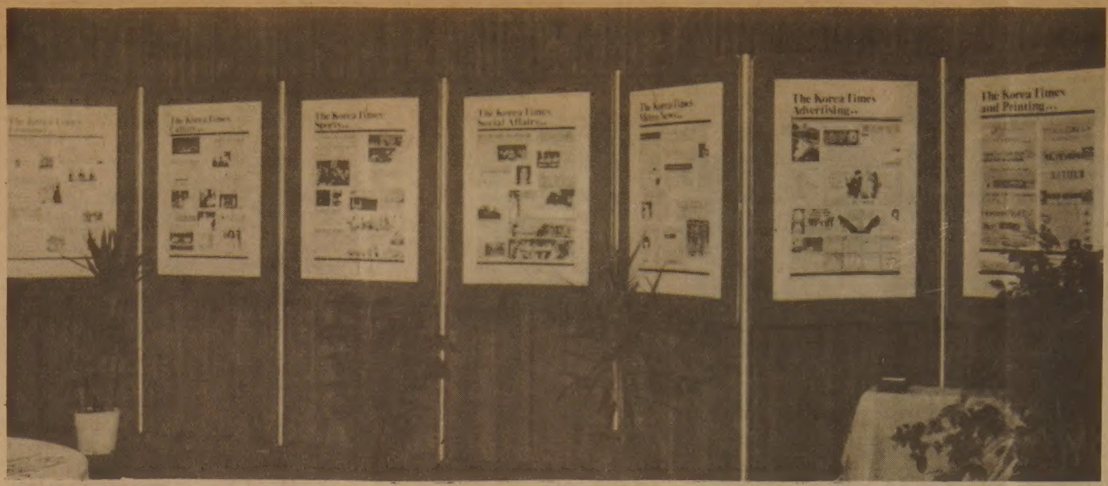
〈세일기간〉
1982년7월2일(금)~7월17일(토)
2주간

〈SALE 품목〉

◈ 홈·카펫	$65	~~$98~~
◈ 밍크담요	$110	~~$189~~
◈ 침대보	$169	~~$210~~

3467 Weston Rd. ☎ : 746—3458 Mrs. 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캐라반 「서울관」의 한국일보 전시판. 한국사회에도 일간신문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전시판은 지난 1년간 신문의 주요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메트로·뉴스, 광고, 인쇄부문등으로 분류. 사진중심으로 엮은 것으로 짤막한 영어설명이 붙어있다.

캐라반 화보

캐라반「서울관」 붐벼
4일간 1만7천명 관람
26일 폐막, 음식도 잘 팔려

〔촬영 김영석기자〕

◆특별출연 김용순 씨의 장고춤.

◆잡채·만두등 한국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선 뉴질랜드인 자기네 "관"에서 춤추다 온 바람에 고유 복장이 이채롭다.

◀ 3단 무등을 탄 정영수도장생들의 2단 앞차기 격파 태권도협회서 순번적으로 태권도를 시범하고 있다.

◆한국 민속·인형 등을 주의깊게 보는 캐네디안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열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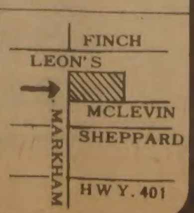
三國志 402 글·高羽榮·그림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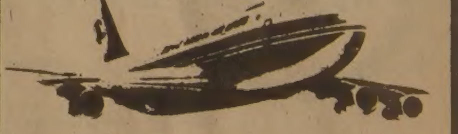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00am—10: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회갑·결혼·돐사진

현대문명의 이기, 비데오로 모든행사
하나하나를 기록할 수 있읍니다.
사진의전당
새한칼라현상소 VIDEO부
630 BLOOR ST. W. 535-7772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傳貰金 최우선 판상規定

民法등 5개制·改正 試案 새 主人에도 請求할수있게

擔保처분 유예기간도 설정
아파트등 所有관계 명백히

법무부는 소액전세보증금을 은행의 담보설정등 모든 채권에 최우선해서 관제토록하고 영세채무자가 대금업자에게 억울한피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담보물처분유예기간을 두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소유관리관계를 명백히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민사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민사관계법률의 시안은 ◆민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集合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등기법(개정)등 5개다. 법무부는 마련한 이를 시안은 전국각대학과 법조계, 관기관에 보내져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확정, 오는10월정기국회에 제출된다.

店鋪겸용 住宅까지 賃貸借보호 확대
집주인이 집세를 마음대로 못올리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안은 그 적용범위를 현행주거용건물에서 점포겸용 주택까지로 확대하고 전세준집을 양도받은사람은 전 집주인의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사례가 없도록했다.

또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으면 전세권이 계속되는것으로 인정했으며 소액보증금은 담보물권이나 다른채권보다 우선해서 관제권을 갖도록하고 집세의 인상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세를 올릴수 없도록했다.

가등기 담보법 제정시안은 채권자는 관상기간이 끝나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하도록 했으며 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에서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 즉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채권자앞으로 등기를 할수있게 했다.

集合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시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보호를위해 요정이나 댄스교습소등을 설치하거나 내부벽을 허는등의 무단 개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集合건물의 대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수천명의 명의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 대표소유제도를 두어 10가구이상이 1개棟에사는경우는 입주자들이 반드시 관리소유자를 선정, 그의명의로 대지등기를 하고 관리소유자의 대지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지처분은 당연무효로 했다.

민법개정시안은 전쟁이나 선박사고로 인한 특별실종에 항공기사고를 추가하고 특별실종기간을 현행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생사불명자의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생존자의 재산상, 신분상의 불편을 덜게하고 실종자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했다.

또 구분지상권제도를 신설, 지하철건설, 지하상가건축때 그지상권을 인정, 시공자나사용자와 지주간의 분쟁소지를 없애도록했다.

이밖에 건물전세기간은 최하 1년으로 정했으며 건물주인이 전세권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사이에 계약경신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때는 기간만료후에도 다시 전과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민법가운데 ◆동성동본금혼완화와 친족범위 축소등의 가족법편 ◆호주제도 상속법편 ◆성년연령인하 ◆법정이율현실화 ◆부동산매매관계서류에 대한 공증제도등도 개정을 검토했으나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번 개정시안에는 보류,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시안은 과거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부동산에대해 인우(隣友)보증만있으면 소유권을 가로해 등기공무원이 반드시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새등기신청이유의 진실여부를 서면조회한뒤 등기를 해주도록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시안을 작성한것은 ◆국민불편해소의 긴급성 ◆국론분열의 우려여부 ◆학계, 실무계의 연구, 검토 ◆개정에따른 이해상충도 ◆국민생활에대한 파급효과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中·大型 연탄값 自律化

5천4백kg칼로리이상 高質 石炭값도

연탄값과 석탄값이 부분적이나마 처음으로 자율화된다. 정부는 3·6kg짜리 이외의 중형연탄및 대형연탄값을 최고가격지정대상에서제외, 자율화시키고 석탄도 5천4백킬로칼로리 이상의 高質石炭값도 자율화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중형탄및 대형탄값, 고질탄값은 생산업체별로 달라지게된다.

19孔炭 내달부터 個當 백58원으로 引上

정부는 또한 이미발표한대로 오는7월1일 0시를기해 3·6kg짜리(19공탄) 연탄값을 3·3%, 석탄값을 5천4백킬로칼로리에 기준 2·2%씩각각 올리기로 했다.

가정에서 가장많이 쓰고있는 3·6kg짜리 기본규격연탄값은 서울가정도가격 기준으로 개당1백53원에서 1백58원으로 5원이 오르게된다. (지역별 가정도가격은 별표참조)

동자부는 현행 석탄품질등급이 저질탄에서 고질탄까지 24등급으로 되어있는것을 3천5백킬로칼로리에서 5천4백킬로칼로리까지를 연탄용중심인 9등급으로 나누어 단순화시키고 5천4백킬로칼로리이상의 고질탄은 산업용으로, 3천5백킬로칼로리 미만의 저질탄은 발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5천4백킬로칼로리이상의 고질탄은 값을 자유화 시켰다.

동자부는 석탄의 관매부진으로 체화현상이 심화되어있으며 최소한의 원가상승요인을 현실화,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값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3·6kg짜리외에 현재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4·5kg짜리와 서울 大邱 大田등지에서 판매되고있는 4·8kg짜리등 중형탄과 7·5kg짜리의 대형탄에 대해서는 가격을 자율화 시키기로 했다.

중형및 대형탄의 소비량은 연간 연탄소비량의 0·68%에 지나지 않아 가격을 풀더라도 수급에 지장을 주지않고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투두장감이 가능한 중탄의 보급을 촉진 시키고 품질과 서비스향상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중형탄의 보급을 촉진, 전체 소요량의 40~50%에 달하면 연탄값을 풀어 자유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4·5kg짜리는 공장도가격이 개당 1백89원, 4·8kg짜리 2백1원, 7·5kg짜리 3백2원씩이다.

◇도시별 연탄가정배달가격 <단위=원 : 3·6kg 1개당>

도시별	현행공장도가	조정공장도가	가정배달가격
서울	131·00	135·00	158·00
釜山	139·50	144·50	167·50
大邱	134·00	138·00	161·00
仁川	134·00	138·00	161·00
水原	134·00	138·00	161·00
議政府	134·50	138·50	161·50
平澤	135·50	139·50	162·50
東豆川	135·50	139·50	162·50
安養	134·50	138·50	161·50
汶山	135·50	139·50	162·50
春川	135·00	139·00	162·00
原州	134·50	138·50	161·50
江陵	135·50	139·50	162·50
三陟	135·00	139·50	162·50
束草	148·00	154·00	177·00
寧越	135·50	139·50	162·50
注文津	148·00	154·00	177·00
東海	135·50	139·50	162·50
淸州	134·50	138·50	161·50
忠州	135·00	139·00	162·00
堤川	134·50	138·50	161·50
丹陽	135·50	139·50	162·50
陰城	135·50	139·50	162·50
大田	134·00	138·00	161·00
天安	135·00	139·00	162·00
論山	135·50	139·50	162·50
溫陽	135·50	139·50	162·50
全州	134·00	138·00	161·00
群山	135·00	139·00	162·00
裡里	135·00	139·00	162·00
南原	135·50	139·50	162·50
金堤	135·50	139·50	162·50
光州	134·00	138·00	161·00
木浦	141·00	146·00	169·00
麗水	140·00	145·50	168·50
順天	135·50	139·50	162·50
金泉	135·50	139·50	162·50
安東	134·50	138·50	161·50
慶州	135·00	139·00	162·00
浦項	139·50	145·50	168·50
榮州	135·00	139·00	162·00
龜尾	135·50	139·50	162·50
奉化	135·50	139·50	162·50
蔚珍	148·00	154·00	177·00
馬山	139·00	144·00	167·00
晋州	134·50	138·50	161·50
鎭海	135·50	139·50	162·50
忠武	146·00	152·00	175·00
三千浦	146·00	152·00	175·00
密陽	135·50	139·50	162·50
濟州	147·00	152·50	175·50

"建設業 輸出진흥 戰略산업"

全대통령致辭 "제2經濟도약 牽引역할을"

◇全대통령이 18일 建設振興촉진대회에서 有功者를 표창하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建設業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先導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증대에 이바지하며 수출진흥을 위한 戰略산업으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經濟難局을 타개하고 나아가 80년대에 기필코 제2의 시련이 중첩될것으로 예상되는 經濟跳躍을 이룩하는 牽引車역할을 수행할 책임과 사명이 建設人에게 지워져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 世宗文化會館에서 열린 建設振興촉진대회에서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내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해외건설도 여건이 악화되고있지만 당면한 內外的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계가 自體力量을 배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建設人은 建設業이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일임을 항상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축적과 施工관리능력의 강화에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기술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提高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또 새로 개척해나갈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보다 기술과 경험이 앞선 나라들과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싼 임금을 앞세워 국제건설시장에 진출해 오고있는 나라들의 추격에 대처해야할 우리건설업계로서는 倍前의 노력과 슬기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신임 法務次官등 全대통령 任命狀

全斗煥대통령은 18일상오 청와대에서 신임 丁海昌법무차관과 金文意 농촌진흥청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亞·太경제사회委 事務總長도 接見

全斗煥대통령은 18일오후 청와대에서 국제연합아시아·太平洋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샤·키브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引責改閣」 24일이후

劉總理 出國으로

단행될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은 빠르면 금주안으로 예상됐던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한 추가引責改閣은 18일 劉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弔問사절로 출국한 劉彰順국무총리가 귀국하는 오는24일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소식통은 18일 劉총리가 全대통령에게 이미 출국인사를 한자리에서도 改閣문제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가改閣은 24일 이후에 단행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劉총리가 出國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사전협의가 있었을 경우 劉총리귀국이전에 改閣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劉總理등 어제 사우디向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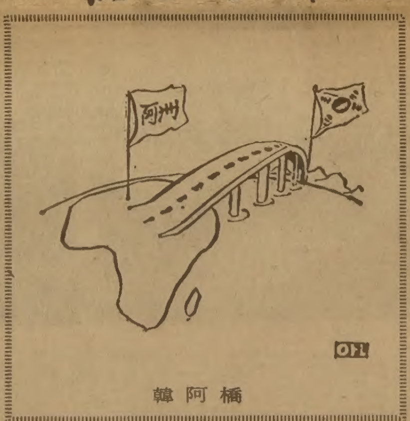
國王逝去 弔問使節

劉彰順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故할리드國王弔問및 파하드신임 國王즉위 慶祝使節團일행이 18일 저녁9시 KAL편으로 出國했다.

劉총리일행은 19일 사우디에 도착, 파하드국왕을 예방하여 조위및 祝意를 표명하고 全斗煥 대통령의 親書를 전달한뒤 23일하오 귀국할 예정이다.

使節團명단은 다음과같다.
▲金宗鎬건설장관 ▲李宣基동자부장관 ▲張禮準駐사우디대사(현지合流) ▲趙英吉총리비서실장 ▲金恒經총리의전비서관 ▲許在榮건설부도시국장 ▲李斗馥외무부의전관 ▲吳毛烈외무부近東과장

社會漫評



이, 48시간戰鬪中止令

하비브仲裁듣게 "레바논과 對埃式 조약希望"

【예루살렘18日AP=聯合】 이스라엘각의는 필립·하비브美중동특사가 베이루트에서 레바논사태의 정치적 타결노력을 계속할수있도록 하기위해 48시간동안 전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이 17일밤 보도했다.

이방송에 따르면 이결정은 뉴욕에 체재중인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과 협의한끝에 이스라엘내각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스라엘각의는 軍에 베이루트공격명령을 내리지 않을것도 결정했다.

한편 베긴수상은 뉴욕에서 미국 유태인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이집트와 체결한것같은 평화조약을 레바논과도 맺고싶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접경지대에 안보지구가 설정된다면 우리는 수주일내에 철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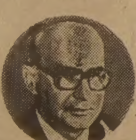
그는또 과거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북부이스라엘에 대한로켓포공격에 언급, 『그같은사태를 앞으론 절대 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 말하고 『레바논은 시리아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의해 벌써 파괴되어있었다』고 강조했다.

◇陸軍총사령관「니콜라이데스」將軍 레오폴도·갈티에리로부터 육군총사령관직을 18일 승계할것으로 보도된 제1군단 사령관 크리스티노·니콜라이데스 장군의 연설모습. 이사진은 1981년찍은것이다. 【뉴욕17日AP=聯合】

아르헨大統領 辭任

갈티에리 "軍지원없어 現職수행不能"

內相이 權限代行


◇헤안大統領權限代行

【부에노스아이레스17日AP=聯合】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7일 군부지지를 상실, 현직을 수행할수가 없어 대통령직과 군총사령관직에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패전 3일만인 이날 각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후 정부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나는 폭풍우속에서 배를 포기하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군총사령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수있도록 군부가 지지를 보내지않아 사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군부가 발표한 코뮈니케는 갈티에리가 군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둔제1군단장인 크리스티노·니콜라이데스 장군이 갈티에리에 이어 육군총사령관직을 승계할것』이라고 전했다.

니콜라이데스 장군은 이와함께 자동적으로 집권 3인 군사평의회의 일원이 된다.

한편 알프레도·사인트·헤안 內相이 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라 3人군사평의회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때까지 임시대통령직을 수행하게된다.

地平線

『그는 용감하지만 법처럼 신중하고, 여우처럼 간교하고, 지적이고, 외교수완가이고, 참을성이있고, 앞으로 나아가기위해 물러설줄 알고, 보다 나은 후퇴를 위해 공격할줄도 알고, 변장술에 능한가하면, 한손으로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른손으로는 폭탄을 휘두를줄도 알았다』— 이것은 프랑스의 파리·마치가 야세르·아라파트에 대해 한 말이다. ▼아라파트는 1929년8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부근에서 태어났다고한다. 그러니까 지금 52세다. 그러나 카이로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있다고한다. 가자지구에서 돈깨나 가진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20년 카이로에 이사간뒤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18세되던 때인 47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아랍·테러리스트 압둘·카데르를 만났다고 한다. ▼압둘·카데르는 18세의 아라파트에게 총을 넘겨주면서 『내 원수를 갚으라』고 소리쳤다 한다. 58년 그는 아랍말로 승리를 뜻하는 「파타」라는 저항조직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만들어 모든 단체를 통합한 것은 69년이었다. 술·담배와 여자를 모르는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과 결혼했다』고 말한적이 있다. ▼변장술에 능한 아라파트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쳐놓은 암살의 그물을 용케 빠져 나왔다. 68년3월 이스라엘의 기갑부대와 낙하산부대가 요르단의 카라메트에서 그를 완전 포위했었다. 이때 그는 히피차림으로 모터사이클을타고 이스라엘군 방어선을 빠져나갔다. 같은해 암만에서 이라크의 함정을벗어났고, 73년 베이루트에서 본부가 폭파됐을때도 살아났다. ▼아라파트는 비둘기와 호랑이라는 두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한다. 제가끔 아랍각국의 배후를갖고있는팔레스타인 조직들을 PLO라는 조직속에 묶어 놓은것도 그의 뛰어난 정치술씨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LO는 창설 12년만에 존망의 위기앞에 서있다. 베이루트의 PLO본부는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기독교계 민병대의 포위속에 독안에든 쥐신세가 돼있다. ▼아라파트는 PLO의 무장해제를 제의했다고한다. 『내땅을 찾겠다』는 PLO로서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베이루트에서는 처참한 시가전이 벌어질것이다. 히틀러의 유대인학살을 이스라엘국가건설의 도덕적기반으로 내세우고있는 나라가 그러한 유혈을 강요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못할 것이다.

한국일보
토론토 한국교민 유일의 일간지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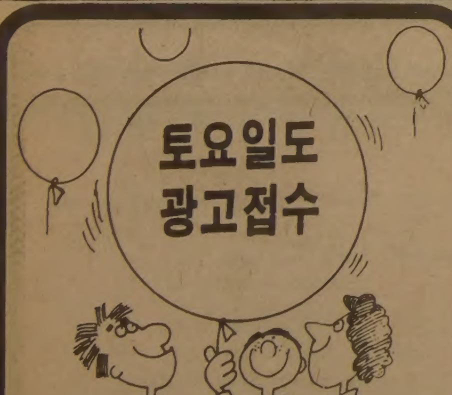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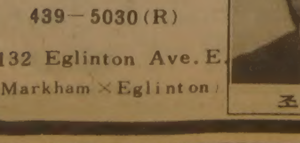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거세진 「民政이양」 壓力

갈티에리退陣한 아르헨政情

軍의 84년 총선거約束에 政黨선 즉각 過政을요구

인사이드

포클랜드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맞은 운명은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처영국수상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철거됐고 대처의 인기는 치솟고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인 핑크·하우스앞에는 성난 군중들의 대규모반정시위가 발생한데이어 갈티에리는 대통령, 육군사령관, 군사평의회 의장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갈티에리의 퇴진은 포클랜드전쟁의 패배에대한 책임과 함께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나 「他意에의한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처절한 것이었다.

『나는 軍이 나를 육군사령관과 대통령을 계속하도록 밀어주지않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갈티에리는 말했다.

군대변인은 『갈티에리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군사령관직에서 사임했다』고 발표했으나 갈티에리퇴진은 14인군고위지휘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며 그당시 갈티에리는 군기지에서 격리된 상태에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티에리는 꺼져가는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스스로 부채질한것으로 현지소식통들은 전하고있다.

◇포클랜드 전투가 한창일때 구국기도회에 참석했던 갈티에리 前아르헨티나 대통령. 빈번한 기도회 참석도 아르헨티나 패배와 그의 정치적 몰락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오른쪽 한사람건너 후임자로 가장유력시되고있는 도소 공군참모총장의 모습이 보인다.

갈티에리는 군부의 전쟁종식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요구를 무시한채 「부분적인 패배」만 인정하고 영국과의 전쟁계속을 고수함으로써 포로송환등 협상을 지연시키는 愆을 범한 것이다.

그는 포클랜드주둔군사령관 메넨데스장군을 「반역자」로 만들어 패배의 책임을 모면해보려고도했다.

사실 갈티에리는 심각한 경제침체및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리가높아지자 포클랜드점령이란 「쇼크요법」으로 무마해보려는 계산이었다.

그렇기때문에 포클랜드전쟁의 패배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를 더욱 드높인 결과만 낳았다.

지금 아르헨티나정국은 급격한 변화에휘말려있다. 갈티에리의 뒤를이어 육군사령관에 反共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 1군사령관 크리스트노·니콜라이데스 장군이 임명됐다. 그는 현정권이 추진하고있는 점진적인 민주화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폭발직전에 도달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및 패전에대한 울분을어떻게 무마시켜야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부의 일부세력은 붕괴위기에놓인 군정을 구하는 자구책으로 민간인을 대통령에 내세우고 실권은 군사평의회에 있는 과도체제를 구상하는 방안을놓고 논란을 벌이고있다. 또 민정이양의 과도적 조치라는 조건을 내놓고 3군사평의회위원 즉 육·해·공군사령관이 돌아가며 1년씩 「순번 대통령제」를 하자는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임명에서는 크리스트노·니콜라이데스 신임 육군사령관이 제외될것이 거의 확실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76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3인군사평의회는 5년간 3명의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그들은 모두 육군사령관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육군사령관이 대통령이 안될경우엔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육군은 정국의 가장 큰 변수로 남게될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미 17일밤 군인들이 (육군) 대통령궁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것은 앞으로의 정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아르헨 민간정당지도자들은 갈티에리 퇴진을 계기로 민주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前부통령으로 강력한 보수당지도자인 솔라노·리마씨는 『지금 시급한것은 90일을 통치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군사평의회는 84년에 총선거를 실시해 민정을 이양하겠다는것을 약속하고있으나 현재 모든정치지도자들은 하루빨리 총선을 실시, 민간정부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갈티에리가 사임하던순간 대통령궁앞에는 격울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일부시민들이 무언의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고전했다.

【崔海雲기자】

東쪽을 보라

아세안 2억6천만人의 새鼓動

싱가포르

原木·고무등 무진장의 寶庫

市場마다 세계商品즐비 漁業合作·바터交易유망

싱가포르의 購物中心에는 한국상품이없다. 우리나라의 쇼핑센터와 같은 이 구몰중심에다가 일본사람들은 이쑤시개까지갖다놓고 판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쑤시개를 못만들어서 일제 이쑤시개를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나라에서 만드는것보다 값싸고 질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수입해다 쓴다는 것이 싱가포르가 정해놓고 있는 원칙이다. 그렇기때문에 이곳 구몰중심에는 세계 각국의 상품이 없는 것이 없다.

일본 사람들도 싱가포르에다가 이쑤시개까지 팔아야할 정도로 수출이 궁색하지는 않다. 그들은 돈 받고 팔수있는것이면 뭐든지 다 수출한다는 철저한 장사속을갖고 있기때문에 이곳 싱가포르에다가 이쑤시개까지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南英鎭지점장 (외환은행싱가포르지점)은 이곳에 나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이론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상품이 이곳에서 맥을 못추고있는 이유를 『싱가포르의 상류층은 歐美제품을찾고 중류층은 일제를 좋아하며 일반서민층은 값싼 중공제품을 선호하기때문에 한국제품이 들어올 틈이없다』고 설명하고있다. 일응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믿고있기때문에 싱가포르에는 이쑤시개도 들여놓을 틈이없다고 생각하는것인지도모른다.

이론적인 한국사람과 장사속이 철저한 일본사람과의 차이는 싱가포르 구몰중심에 잘 나타나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스테레오 진공소제기 전기면도기 카메라 손톱깎기 내의 양말에 이르기까지 일본상품은 없는게없지만 한국상품은 시험삼아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의 눈에도 잘 띄지않는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자동차꽁무니에붙은 글자도 도요다 닷산 닛산 스즈끼 미쓰비시 이스즈등 대부분이 알파벳으로 쓰여진 일본글자다. 싱가포르에 있는 30만대의 자동차중 80%가 일제라고 한다.

얼마전 現代의 포니가 상륙해서 순식간에 8백대가 팔려버리자 이곳사람들이 깜짝놀랐다고 코트라의 金소장은 말했다. 부딪치면 뚫린다는것을 보여준셈이다. 상류층이 어떻고 중류층이 어떻다는 이론이 아무리 옳은것이라 하더라도 이쑤시개까지 우리가 일제를 대항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南지점장은 개탄했다.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되는이유를 찾는데 더애를쓰는것 같다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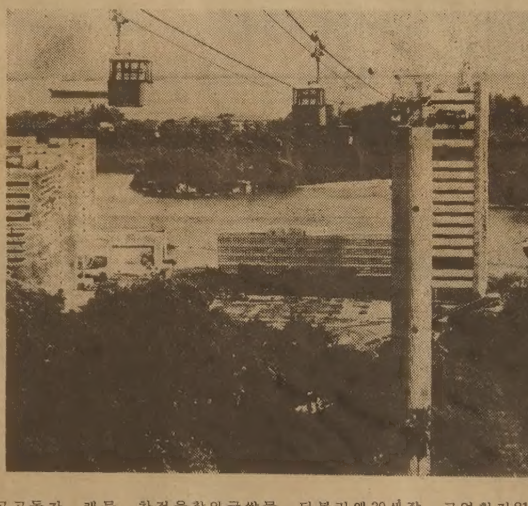
코트라의 한 직원은 국내 종합상사들이 포트 (물량단위)가 작다는 구실로 싱가포르시장을 외면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덤핑을 하더라도 포트가 큰 미국이나 일본 유럽시장으로 가려하지 고급품으로 소량주문을 하는 이쪽 시장은 거들떠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쑤시개 하나라도 팔아보겠다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이곳 시장의 특성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백화점을 하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있다. 또 싱가포르가 남빙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원양어업의 기지이며 이곳에는 돈은 있지만 기술과 선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업합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유망한 건설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해외건설진출을 해야한다는 건의도 해놓고있다. 이런 건의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없다.

방콕시내도 일제차량의 홍수다. 전차량의 70%가 일제라고 한다. 이곳에는 「삼토」란는 오토바이모양의 三輪승용차가있는데 대당 가격이 5천바트 (2백달러 가량) 밖에 안하는 이 허름한 차도 일본사람들이 합작공장을 차려 만들어 내고 있다. 삼토와 함께 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도 죄다 일제다. 방콕시내 백화점에서도 한국상품을 구경하기는 쉽지 않다.

룩·이스트 (東쪽을 보라) 정책으로 한창 한국·붐이 일고있는 말레이지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도 한국상품을구경하기는 어렵다. 1백만대가 넘는 차량의 대부분이 볼보 뿐조 닷산 도요다 닛산등이다. 내구소비재는 대부분이 일제다.

마닐라도 마찬가지. 한국상품이 거의 없다. 이곳에 나와 있는 대사관 경협관계자들이나 코트라 직원들은 필리핀의 빈부차가 심하고 상류층은 고급 歐美제품이나 일제를 찾고 일반서민층은 구매력이 없기때문에 한국상품이 팔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안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중산층이 없어 내구재는 안되고 천상 플랜트수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나라의 金融이 약해서 일본과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다.



◇아세안을 일본의 안마당이라고까지 말한다. 일본은 아세안 5개국을 자원지로도 써먹고 상품시장으로도 활용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아세안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싱가포르의 관광명소인 센토사섬의 케이블카】

지난 한햇 동안 아세안 5개국과의 장사를 결산해 보면 5억2천4백만달러 적자가 났다. 흑자난 곳은 싱가포르 한곳뿐이고 4개국과의 무역은 모두 적자다. 80년의 적자규모 3억4천8백만달러보다 그 폭이 45%나 확대됐다. 80년에 11억3천1백만 달러였던 對아세안 수출은 81년에는 10억9천6백만 달러로 절대액자체가 오히려 줄어버렸고 수입은 14억8천만 달러에서 16억2천1백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들어서도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잘 팔리는 컬러TV나 흑백TV가 왜 아세안국가에서는 안 팔린다는 것일까. 섭씨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더운 나라에 왜 냉장고나 에어콘 카룰러 같은게 안팔린는가. 하다못해 값싼 선풍기라도 팔아볼수 없을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갖게되는 소박한 의문이다.

이들 나라의 국제수지사정이 좋지않아 물건팔기가 힘들다고흔히말하지만 돈대신 쌀이나 원목 고무 주석같은 자원으로 대금을 받아도 될 일이다. 수십억달러어치의 쌀과수억달러의원목 고무 원당등을 현찰로 사와야 하는 우리입장에서 수출대금을 반드시 현찰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값을 원목으로 받아와도 되고 건설공사대금을쌀로 받아와도 좋은 일이다.

아세안 붐이 일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무역적자가 날로 확대되고있는것은 아무래도 우리쪽에 문제가 있기때문인것같다.

그들이 좀더 잘 살아보기 위해 잠자는 가능성을 깨우며 『東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눈앞의 황금시장을 내버려두고 안일과 타성과 게으름속에서 낮잠을자고 있는것 같다.

『東쪽을 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이다.

【朴 武특파원】

◇武裝해제 당하는 아르헨軍 아르헨티나軍이 포클랜드에서 英國軍에 항복한후 아르헨티나軍 병사들이 포트스탠리에서 그들의 무기를 英國軍에 넘겨주고 있는 광경。英國軍사진사 론·허드슨중사가 찍은 이사진은 17일런던에서 공개됐다. 【포트스탠리 (東포클랜드) 17일 AP화상=聯合】

아르헨、政黨활동 自由化

도소將軍발표 禁止6년만에 再開

【부에노스아이레스18日聯合】아르헨티나 집권 군사평의회 일원이며 공군사령관인 라미·도조장군은 다음달부터 국내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텔람통신이 18일보도했다. 이통신은 도조장군이 갈티에리 대통령이 사임을 표명한 17일 고위 공군장교들과 회담을 가진후 이같이 발표하고 정당활동자유화조치와 관련 새로운 법령이 오는 7월 공포된다고 밝힌것으로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76년 군부가 페론정부를 축출한 후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왔다.

蘇機 百臺구입

아르헨 代金은 穀物로 支拂

【부에노스아이레스17日AP=聯合】아르헨티나는 소련으로부터 미그23및 미그25기 1백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곡물로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의 영자지 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사소식통들을 인용하여 거래가 성립된후 다음해부터 곡물지불에 연리 9%의 이자가붙을 이같은 미그기와 곡물교환협정이 다음주말 이전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에는 소련측에 의한 항공기정비와 조종사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신문은 협정내용이 세르게이·스트리가노프 아르헨티나주재 소련대사와 아르헨티나 고위관리들 사이에 이미 논의됐으나 포클랜드사태와 관련, 미국과 영국이 취할 앞으로의 입장에 따라 그내용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시리아에 武器 蘇·리비아供給

【워싱턴17日AP=聯合】소련과 리비아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시리아군의 무기를 보충해주기위해 시리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미국방성 측근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소련제 TU22수송기와 리비아 수송기들이 금주초이래 정기적으로 다마스커스에 착륙, 군수물자를 하역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미소식통들은 소련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베카계곡습격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미사일을 대체하기위해 신형 이동식 샘6 지대공미사일을 인도하기로 결정한것으로 믿고있다.

또 믿을만한 보도들은 소련공군참모차장 예프게니·유라소프가 시리아에 필요한무기와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에의해 파괴된 샘6 미사일포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다마스커스를 방문중에 있다고 전했다.

美·中共 對臺灣 무기販賣문제 해결위해

중대 聲明준비

【北京17日AP=聯合】미국과 중공은 양국관계의 앞날을 위협하고있는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의 上海성명」이라 할만한 중대 문서를 입안하고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들은 이문서의 세부사항이나 양측의 입장이 밝혀지지는않고 있으나 양측은 이미 상호안을 교환하고 구체적 문안에관한 협의를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上海성명은 10년간 미국과 중공이 관계개선에 합의하면서 발표된 것인데 중공은 對臺灣무기판매가 上海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미·중공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제2의 上海성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말하고있다.

美國은 이문서에서 하나의 中國원칙을 재확인하고 對臺灣무기판매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것이라는점을 밝히는 한편 그 댓가로 中共으로부터 무력으로 臺灣을 합병하지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내거나 對臺灣무기판매감축문제를 臺灣해협에서의 긴장완화와 연계시키려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外信안테나

★蘇, 레이건演說 냉담한反應

소련은 17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축에대한 열의를보이라고 촉구한 레이건 美대통령의 유엔군축회의 연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는 이 연설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당분간 논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나 유엔주재 소련대사 올레그·트로야노프스키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또다른 소련대표는 『군축과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못한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유엔본부=AP】

★스즈끼、太平洋국가協力촉구

스즈끼·젠꼬 (鈴木善幸) 日本수상은 16일 太平洋국가간의 협력과 결속을 촉구하고 美·日을 비롯한 域內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과의 연대강화, 그리고 한국의 안정적발전과 중공의 온전한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강조했다. 【東京=聯合】

★西方、對波借款회의곧개최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대서방차관상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임에따라 서방차관단들은 이들의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회담을 곧 개최할 것이라고 국제금융소식통들이 전했다. 【파리·런던=AP】

海外토픽

首相관저 鐵網제거

★英 포클랜드奪還 이후에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군이 항복함으로써 지난4월2일 포클랜드사태가 발발한이래 다우닝가 10번지의 영국 수상관저주위에 설치됐던 바리케이드가 16일철거됐다.

경찰은 포클랜드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구경꾼들이 수상관저입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던것. 【런던=AP】

메아리

사라져야 할 말

2審에서도 「無罪」 판결을 받은 高淑鍾여인은 保釋으로 풀려난직후 그가 경찰에서 받았다는 「拷問」에 대해 또한번 세상에다 호소하였다. 경찰에 연행되어가 조사를 받으면서 옷을 발가벗겨지고도 했고, 곳곳 허리가 발길로 짓눌려 지금도 곳곳이 못편다고 했다. 또 「현장검증」나가기 전날 경찰서 지하실에서 범행을 「再演」하는 예행연습을 하였다고도 말했다.

高여인은 1심때의 재판과정에서도 그의 「자백」이란것이 강압에의해 이루어진것이라고 털어놓아 세상을 놀라게했었다. 高여인이 2심까지는 「無罪」의 선고를 받았다. 그가 영영 無罪로 확정되든, 혹은 최종심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게되든, 이에 관계없이 『나는 고문을 받았다』는 항변과 사회에대한 호소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응분의 반응을 보여야 할것같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고문, 강제자백, 인권유린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지에대해 그 진부를 조속히, 명쾌하게 밝히는것이좋겠다.

로스앤젤레스에서 7년동안 변호사를 개업해온 교포 閔모씨는 아직껏 법정에서 피의자입을통해 「고문」이란말이 튀어나온것을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한일이 있다. 미국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는 말이다. 피의자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다보니 때로는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는 수가 많아 레이건 大統領까지 『10년간에 강력범이 59% 증가했는데 검거율은 고작 10%』라고 푸념을 털어놓은 일이있었다. 그래도 피의자는 「有罪」가 선고될때까지는 「無罪」로보며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기소청구를 하지않는 것이 미국수사기관의 태도라는 것이다.

범죄자의 지능이 나날이 높아지고 대담해지며 흉악해져 수사기관의 과학적인 수사능력이나 기동력이 이를 따라잡기 힘든것이 현실인듯하다. 그래서 우리경찰도 과학적 장비를 보강하고 고급수사인력을 확보하여 증거위주의 과학적수사를 지향하겠다고 한다.

개선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나마 우리경찰의 범인검거율은 95.6%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문제는 그 피검자가 진범이라야 하고, 또 증거로 진범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80년도 살인범 검거율이 97.5%였다. 그러나 이들중 「무죄」나 「고문」「임의자백」같은 것을들어 항변한 자는 없었다한다. 우리에게서 고문이란 말이 진작 사라져야 옳았다.

새로 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ORGAN 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올갠 시대가 DIGITAL CONTROL로 다가왔읍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 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건반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읍니다.

가와이 DIGITAL ORGAN은 250개회로의 특허로 등록되었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고달픈 이민생활의 Stress를 Kawai Digital Organ의 아름다운 Melody로 온 가정에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보십시오.

★ 한국인의 유일한 가와이 딜러에서는 올갠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에게 2~6개월간 무료로 지도해 드립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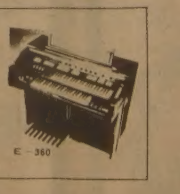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Bontempi 이태리안 올갠

$799.00

$399.00

$99.00



$39.95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호섭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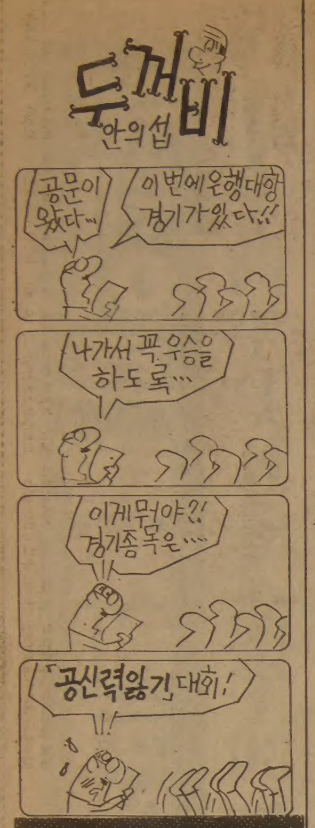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背後엔 국제金塊밀수단

百억臺 去來…국내 換錢責이 代金결제

34만弗사건

金琫燮이 바꿔간 手票추적결과 확인

金浦공항 미화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18일 수배중인 金琫燮(31) 李永鎬(33)등이 朝興은행 牛島지점등 3개은행에서 환전할때 사용한 수표를 추적한결과 이들이 국제적인 금괴밀수조직의 국내환전책으로 국내에서 밀수대금으로 결제받은돈임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李등의 주변인물과 3개은행의 TC관계 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금까지 최근 2년간 환전해간 액수는 金이 1천여만달러(70억원), 李가 4백여만달러(28억원)등 모두 1천5백여만달러였음을 확인, 이들의 배후에는 거래량이 줄잡아 1백억원 이상인 대규모 금괴밀수조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金에게 국민은행 退溪路지점발행 1천만원짜리 수표 1장을주고 TC를 받아간金正完씨(32·서울江南區驛三洞)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金이 환전해간 TC의 대부분이 달아난金正完한테 흘러간 사실을확인, 金琫燮등이 금괴밀수조직의 환전책이며 달아난 金正完도 이밀수조직의 판매책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수표추적결과 금은방 수선당주인 한양수씨(35·서울鐘路區鐘路4街38)등 6명의 금은방 주인이 이 밀수조직으로 부터 금괴를인수,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신병이확보된 한씨, 明洞영창당주인 박지홍씨(30) 롯데1번가 이보당 주인 柳亞榮씨(35)등 3명을 특가법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씨의 형 한원수씨(40·금정사주인·서울鐘路區鐘路4街)등 3명의 금은방 주인들은 수배하는 한편 한씨등이 밀수금괴를 세공하는데 사용한기계 프레신 10여대도 증거물로압수했다.

한편 金琫燮이가져간 수표중에는 國民은행 退溪路지점 발행 1천만원권 2장외에, 第一은행 중앙지점발행 1백만원~2백만원권 3장도 있었는데 이수표들은 I실업대표 李모씨(33)가 패션업체인 투크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아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이수표가 金의 손에 들어간과정도 조사하고있다.

한편 서울시경은 18일 金琫燮·李永鎬등 2명을검거하기위해 전담반을 설치했다.

失業보험 導入검토

從業員 2백명이상엔 職業훈련

鄭勞動장관 밝혀

鄭漢株노동장관은 불황의 장기화에따른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로 실업보험등의 고용지원제도를 연구, 도입할방침이라고밝혔다.

鄭장관은 18일 한국경영자협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노동부장관 초청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부담의 경감과 인력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위해 직업훈련 대상기업을 종업원 2백인이상으로 확대하는대신 훈련실시 의무비율을 대폭 낮추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M16銃 強盜미수

3人組共謀 1명검거 2명手配

◇007式한탕 검거된金壽福

主犯 애인집서 銃·실탄發見

대상 물색하다 一黨이 提報

17일 하오2시께 서울城北區貞陵1洞139의57 녹정휴게실에서 범행을 모의하던 李昌健(34·서울城北區貞陵1洞16의206) 金壽福(29·〃140의9) 李斗鉉(27·주소불명)등 3명이 제보를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격투끝에 金은 현장에서 검거되고 주범 李昌健과 李斗鉉은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려던 총기는 M16 2정과 실탄2발등은 이날밤10시30분께 주범李의 애인인 申明蓮씨집(33·서울東大門區徽慶1洞110의1) 부엌 다락에 숨겨둔것을 찾아내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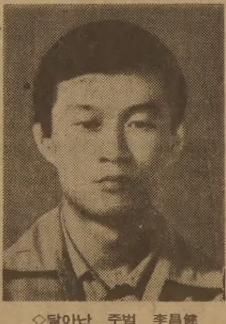
모의……주범 李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江東區 長旨洞 모처에서 총기와 탄환을 훔쳐 당구장에서 친해진 공범들에게 『크게한탕해서 비행기를 납치, 외국으로 도망치자』고 제의했다.

주범 李등은 당구장 종업원 K씨와 J씨에게도 범행계획을 제의, 이날 범행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위해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것.

銀行등 크게한탕 비행기拉致 脫出계획

警察비상령…空港 검색

M16소총으로 은행이나 부잣집을 턴다음 비행기를 납치, 외국으로 도망친다는 범행계획까지 세우고 대상을 물색중이던 총기강도단3명중 1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2명은 공개수배됐다. 이들은 주범으로부터 범행제의를 받은 공범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대상을 물색하기위해 다방에서 모였다가 출동한 경찰과 격투끝에 1명만 검거됐다.



◇달아난 주범 李昌健

검거……이들의 범행계획은 이날하오1시15분께 범행제의를 받았던 K씨와 J씨가 모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발각됐다.

신고를받은 수사기관은 17일 中部경찰서형사2명을 대동, 접선장소인 녹정휴게실로 출동했다.

하오2시께 수사관들은 미리와 대기하고있던 金壽福을 검거, 수갑을 채운뒤 다시 주범 李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5분뒤 주범李로부터 金을찾는 전화가걸려와 수사관들이 金에게『별일없으니 휴게실로오라』고 말하게 했는데 金이『전화속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는것으로보아 근처다방에서 거는것같다』고 말해 수사관2명이 李를찾으러 휴게실을 나섰다.

이때 주범李와 李斗鉉이휴게실입구로 들어서자 남아있던 수사관2명중 1명이 주범李에게 다가가 『주민등록증을보자』며 검문을 시작하는순간 눈치를챈 李등이 수사관의 배와 얼굴등을주먹으로때려쓰러뜨린후 달아났다.

총기……경찰 조사결과 이 총기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모처에서 분실돼 전국에 수배중이었다. 주범 李의 매제申씨집에서 나온 범행용 무기는 M16소총 2자루와 실탄2발, 탄창10개 였으며 면장갑 2켤레, 책보자기3개, 등산용 스타킹 1족, 비닐백 1개등이었다.

이 총기류는 17일하오6시께 도주중이던 주범 李가 애인 申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자기집 부엌 다락방에 숨겨두었다가 남동생(31·서울시공무원)이 모수사기관에 신고해 회수됐다.

수사……경찰은 서울시경에 수사본부(본부장 趙庸隅 제2부국장)를 설치, 서울시내 전경찰서에 비상근무령을내리고 범인의 도주로와金浦공항등에 삼엄한 경계망을 폈다.

경찰은 주범 李가평소『권총을 갖고있다』고 말했다는 점을중시, 검문검색을 신중하게 펴게하는한편 이들이비행기 납치극을 벌일것에 대비, 金浦공항의 경계도 강화했다.

경찰은 주범 李가 동료및 이웃에 거의 신분이 노출되어있지 않았고 평소『출국』등의 말을 자주사용해 용공의 점 부분에도 수사를계속중이다.

한편 주범李는 17일하오3시께 李斗鉉과함께 서울城北區下月谷洞25의42에 사는 형(36)집에들러 어머니(57)에게『사람을 때려 돈이 필요하다』며 도피자금을 얻어갔다.

李는 그뒤 이날밤 10시께 형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머니가 『빨리자수해라』고 설득하자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李는 17일 하오2시20분께 당황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부인 金씨에게 『당분간 아이들을 잘돌보아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뒤 서둘러 집을 나갔다는것.

主犯 李昌健 권총가졌을지도

百60cm키에 長髮

범인……주범 李는 전남木浦가 고향으로 전직경찰관의 3남1녀중 2남. 지난65년M상고를 중퇴한뒤 가족들과함께 서울로 이사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생활해왔다.

李는 지난7년 결혼식도 올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한채 金모씨와 살고있는데 1남1녀가 있다.

또 녹정휴게실주인 田綠善씨(34·여)에 의하면 李등은 금년초부터 3~4일마다 한번씩 휴게실에 함께왔는데 유부녀로 보이는 젊은여자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제비족』으로 생각했었다는것.

李는 애인 申씨와 貞陵3洞山92에 보증금 30만원, 월세4만원에 방을얻어 이중생활을하고있다.

주범 李는 1백60㎝의 작은키에 통통하고 머리는 장발이며 얼굴은 둥글고 눈이 큰편이다.

공범 李斗鉉은 1백70㎝에 마른편으로 얼굴이 희고 갸름한편이며 구렛나루 수염이 나있다. 옷은 흰바탕에 초록색무늬, 八字걸음을 걷는게특징.

金은 밤색점퍼에 검정바지를 입고 흑색구두를 신었다.

徐奉洙7단 1勝

連勝曺名人에 8집반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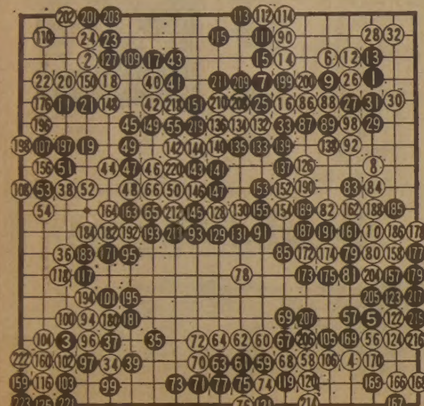
13기名人戰3局

1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3기 名人戰(한국일보社제정) 도전5번기 제3국에서 도전자 徐奉洙7단은 曺薰鉉名人에게 8집반을 이겨 2연패끝에 1승을 거두었다.

曺名人의 집중으로시작된 이날대국에서 徐도전자는 포석초반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 1백여수만에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曺名人은 2백23수까지 안간힘을 다해 추격했으나 반면으로도 3집이나 모자랐다.

이날두 기사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바둑을두어 제한시간5시간중 徐7단은 1시간45분, 曺名人은 2시간만을 사용했을 뿐이다.

막판에 몰린끝에 1승을 거둔 徐7단은 최근 曺名人의5연승에 제동을걸었다는점에서 바둑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제13기 名人戰 도전5번기3局 總譜(1~223)
白 도전자 徐奉洙 7단
黑 名人 曺薰鉉 9단
<제한시간 각5시간·소비시간白1시간45분, 黑2시간>
(白8집半勝)

銀行지점장 自殺

2억융자 同窓회사不渡

◇자살한 金秉奭씨

【仁川=方敢俊기자】 17일 하오4시 10분께서울 신탁은행 仁川지점장 金秉奭씨(48·서울恩平區葛峴洞46의4)가 동생이 살고있는 仁川市中區新興洞 삼익아파트1동14층 8호앞 화단으로 투신자살했다.

경찰은 金씨의 친구 金모씨(48)로부터 『1주일전 함께 술을마셨는데 金씨가『지난3월 부임한지 며칠뒤에 고교동창인 宇星제지 대표 李茂培씨(48)에게 2억원을 대출해줬으나 李씨가 부도를내고 행방을감춰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비관해왔다는 진술을 들어 은행대출과 관련, 자살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에따르면 金씨는 지난3월 仁川市北區淸川洞126에있는 친구李씨의 宇星제지에 기업어음할인형식으로 李씨회사와 서울中區武橋路1가 S포장을 보증담보로 은행돈 2억원을 대출해줬는데 담보물권으로 잡은 李씨회사와 S포장이 차례로 도산했다는것.

친구 李씨는 2억원을 대출받기전 사채업자로 구성된 10여명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은행지점장으로있는 내 친구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빚을갚겠다』고 말하고돈을 대출받은뒤 빚을 전혀갚지않은채 행방을 감췄다는 것.

李씨의 채권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지점장인 金씨는 친구들에게『경찰에조사를 받게됐으니 큰일났다』고 무척고민해왔다는것.

李씨가 경영하던 宇星제지는 넝마주이로부터 폐지를공급받아 이를 다시 포장용 제지로 재생산하는공장인데 대금이 6개월씩이나 밀렸으며 李씨가 행방을 감추자 대출선인 지점장 金씨사실까지 몰려가 항의소동을벌여 金씨의 고민을 가중시켰다.

자살한 지점장金씨와 친구 李씨는 仁川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자살한 金씨는 仁川高校와 延大상경대를졸업한뒤 28살 때 신탁은행에 입사, 지난3월17일 仁川지점장으로 부임하기까지 서울본점의 영업부 차장으로 있었다.

金씨의 시체는 仁川시립병원영안실에 옮겨졌다. 사고소식을듣고 달려온 부인愼景花씨는이날하오7시30분께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실신, 같은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다.

숨진 金씨는 이날하오4시께 은행직원들에게『예금섭외를하러간다』며 외출했었다.

NASA、한국科學徒 초청

콜럼비아 發射 壯觀보라고

【安東】한과학도가 오는 27일 발사예정인 美우주선 콜럼비아 4호가 카운트다운되는광경을 나사(미항공우주국) 초청으로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있게 됐다.

安東市 靈興洞206의2 趙周環씨(33·사진)는 지난 15일 나사의 총지휘자 엘마·디·그린씨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콜럼비아 4호가 발사되는 장관을 美國케네디센터의 망루대 귀빈실에서 관람할수 있게 된것. 【聆】

趙治勳 4집반憤敗

本因坊결정전 3局

【東京17日=聯】趙治勳본인방 名人은 17일 제37기 본인방 결정전(每日신문주최) 7번승부 제3국에서 도전자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과의 치열한 접전끝에 4집반 차로 패해 1승2패를 기록했다.

宜寧 총기亂射사건 前署長등 1회公判

【晋州】경남 宜寧郡 宮柳面 경찰관 총기 난동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宜寧경찰서장 崔在潤(57)、전 宮柳지서장 許唱淳(44)、차석 金鎭宇피고인(35)등 3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하오2시 부산지법 晋州지원 제1호 법정에서 晋州지원 형사단독 金永근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공판에는 검찰측에서 부산지검 晋州지청 孔昌喜검사가、변호인은 崔性仁 鄭仁錫 강창록 趙栢奎등 4명의 변호사가 관여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장낭독에 이은 사실심리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정에는 피고인가족 20여명과 피해자가족 10여명등 1백여명이 방청석에 나왔다.

3층서 추행피해 脫出여고생 重傷

【麗水】전남 麗水시내 모여고 2년 김모양(17·麗川郡華井面)등 2명의 여고생이 지난 13일밤 11시께 남고생 3명에게 시내 모국민학교 3층으로 끌려가 폭행을당하고 강제로 욕을당할 위기에 놓이자 김양이 3층 복도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려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등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실은 김양의 가족들이 뒤늦게 신고、麗水경찰서가 18일 順天모고교 3년 이모군(17·麗水市忠武洞)과 조모군(17·麗川郡華井面)등 3명을 강간치상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밝혀졌다.【聆】

神의 목소리

바이얼린 匠人 崔洪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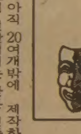
絶對音을 絃에…만들고 부수기 20년

바이얼린의 숨은 匠人 崔洪淑씨(46·사진·서울中區墨井洞 묵정아파트810호)는 神의 목소리를 현(絃)에 담아보는게 평생 소원이다.

젊어서 얻은 영감을 소리로 표현해보기위해 구도의 길을 걸은지 20년. 처음엔 마음에 드는 바이얼린을 겨우겨우 만들어보았지만 마음에 차지를 않는다.

崔씨의 반평생은 스스로 택한 어둠의 길이었다.

崔씨는 현재 국내에 비교적 알려진 4~5명 바이얼린장인중의 한사람. 지난해 8월 첫작품을 만들어본이래 아직 20여개밖에 제작하지 않았으니 일반에게는 물론 연주자들에게도 생소하다.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후귀국, 국민학교밖에 다녀보지못한 崔씨는원래는 화가지망생이었다. 늦게나마 솜씨를 인정받아 어느 화장품회사에 일자리를 얻고있던 25세때 그는 처음으로 바이얼린과 만났다.

성악을 공부하던 동생이 고물장수한테서 사온 낡은 2백50원짜리 바이얼린 한대가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게된것이다. 『네개의 줄이빚어내는 소리는 가난했던 나의 영혼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고 신비의 소리가 주는 압도할수없는 힘에 한걸음씩 빨려들어 버렸읍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그는 그이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굳게 믿고있다.

그때부터 그는그림을팔아 돈이모이는대로 淸溪川을 헤매며 먼지 쌓인 바이얼린을 사모았다. 신비스런 선율은 주린배를 대신 채워주었고 신혼살림은 1백여개의 낡은 바이얼린이 대신 메웠다.

고독한 작업은 계속됐다. 어두컴컴한 골방에 틀어박혀 부수고 다듬는 끝없는 고행을 반복하게된 것이다. 지쳐 쓰러졌을때 꿈속에서 『절대음』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끝에서 재생되지는 않았다.

그런 그는 7년전 교회를 찾아가 기구하면서부터 손끝에 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세계적 명기「스트라디바리우스」나「구아넬리우스」에 십자가가 새겨진뜻을 그제야 깨달았다고도 했다.

한국에서 자란 단풍나무에 독일제 현을 얹은 작품에 그는 이름을 새겨넣는다. 이것은 아직 갈도 없고 명연주가의 손에 들려보지도 못했지만 언젠가 「신의 목소리」를 재생시켜 본다는 자기와의 약속이다.【韓基奉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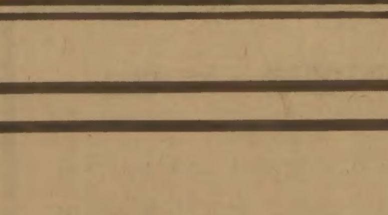
인사말씀

7월1일 개업

녹음이 날로 생기를 더하는 약동의 계절, 교민 여러분의 다복을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식품 서부지점 을 개설하여 친절을 다하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싼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김영록배**

서울식품(서부)

1391 WESTON RD.
☎ : 243-9544



월드컵축구 쿠웨이트、強敵체코에 비겨

前半PK골…後半30m슛 날려 1-1

오스트리아、칠레 물리쳐

【마드리드17日=聯合】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대표인 쿠웨이트는 18일 새벽(한국시간)바야돌리드에서 벌어진 제12회 월드컵축구 5일째 4조첫경기서 강호 체코슬로바키아와 1-1로 비겨 또다시 파란을 일으켰다。

2만5천여관중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 쿠웨이트는 전반21분 페널티킥을 허용、체코의 안토닌·파넨카에게 1골을 내주었으나 후반13분 알·다킬의 30m장거리슛으로 동점골을뽑아냈다。

쿠웨이트는 후반 15분이후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체코를 압도、관중들을 놀라게 했으며 카밀、야쿱、알·다킬의강슛은 아깝게 득점에 연결되지 않았다。

2조경기에서 오스트리아는 칠레를 1-0으로 물리쳤으며、5조의 유고슬라비아-북아일랜드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제5일전적

▲4조 쿠웨이트 1(0-1, 1-0)1 체코 (1무)(1무)

▲2조 오스트리아 1(1-0, 0-0)0 칠레

▲5조 유고 0-0 북아일랜드

◇19일 경기

▲1조 (비고) 이탈리아—페루

▲3조 (알리칸테) 아르헨티나—헝가리

▲6조 (세빌리아) 브라질—스코틀랜드

◇쿠웨이트의 善戰 쿠웨이트-체코전。쿠웨이트의 파이잘·알·다킬(⑯·16번)이쏜 슛을 체코의 GK투스카가 점프하여 잡으려했으나 못미쳐 동점골을 허용。【바야돌리드17日AP=聯合】

亞洲청소년 축구 代表팀 18명선발

대한축구협회는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동부지역예선전 (7월31~8월14일·싱가포르)에 출전할 대표선수 18명을 선발했다。

▲코치=朴鍾煥▲트레이너=李二雨▲선수=姜承鎬(영등포공) 金成秀(성대)(이상GK) 金判根(금호고) 文元根(서울시청) 盧仁佑(고대) 俞炳玉(마산공) 金大暎(영등포공) 孫炯先(한양대)(이상FB) 徐大建(금호고) 金興權(전남대) 金政根(동국대)(이상HB) 朴國昌(조선대) 申連浩(금호고) 李太炯(안양공) 金俊鉉(연대) 李承熙(강릉농공) 金鍾珉(한양공) 李基根(우신)(이상FW)

眞德 臺灣에져 존스컵 女子籠球

【臺北17日AP=聯合】한국여자농구대표2진인 眞德팀은 17일밤 臺北에서 속개된 제6회 존스컵쟁탈국제여자농구대회 결승리그에서 臺灣의중화팀에 77-61로 패했다。

한편 무패의 기록을 안고있는 美國과 濠洲는 18일밤 존스컵을 차지하기위한 결승전을 벌인다。

한국女子 초청 제네바 국제농구

【제네바17日=聯合】국제아마농구연맹 (IABF)은 창설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18일 제네바에서 국제농구대회를 개최한다。

IABF는 여자초청팀으로는 한국과브라질 국가대표팀을、남자팀으로는 美대학선발팀 송유럽 선발팀을 선정했다。

한국여자 대표팀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4개국 국제친선 여자농구대회에 참가한후 이날 제네바에 도착했다。

新銳팀 突風 異變이 아니다

월드컵 벨기에-카메룬-알제리-온두라스의 善戰

短評

支援과 노력代價…亞阿팀 급격向上

豫想은 깼지만"이길게임 이긴것뿐"

벨기에 1-0 아르헨티나、페루 0-0카메룬、스페인 1-1 온두라스、알제리 2-1 서독、체코 1-1 쿠웨이트。

【安奉煥기자】

월드컵通信

石油富國을 과시

◆…강호 체코와 1-1 무승부를 기록해 또다른파란을 일으킨 석유부국 쿠웨이트 선수들은 보너스로 1인당 8천6백달러씩을 받게됐다。

쿠웨이트축구협회는 앞서 이들에게 월드컵 본선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8천6백달러씩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

이들은 또 승리할 경우 게임당 1만7천달러씩을、만약 2차리그진출의 꿈을 실현시킬경우 거금 20만달러씩을 받게된다。

쿠웨이트는 잉글랜드·프랑스와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敗戰아르헨必死

◆…첫경기서 벨기에에 예상외의 패배를당한 아르헨티나는 19일의 對헝가리전을 앞두고『그라운드에서 죽을 각오가 돼있다』며 비장한 태도。

포클랜드전쟁서 영국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선수들은『우리마저 지면 아르헨티나는 영원히 죽는다』며 필사의각오로 對헝가리전에 임할것을다짐。

日光浴취소 强訓

노먼17세 최연소

◆…북아일랜드의 노먼·화이트사이드는 17세의 나이로 유고와의 경기에 출전、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와 함께 최연소 월드컵 본선 참가선수가 되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유나이티드팀에 입단한 스트라이커 화이트사이드는 이날 경기중 노엘·브라더스론과 교체돼 출전했는데 그의 경기모습을 본 축구관계자들은『잠재력을 가진 유망한선수』라고극찬。

2차리그 進出하면 쿠웨이트 20萬弗씩

"西獨GK 또 지면 얼굴成形수술"

英선수 더위 곤욕

폭발물在中 緊張

英축구팬 法廷에

【이상外信=綜合】

팝토픽

「흑과 백」連6주째 톱 美 캐시박스 選定

★…폴·매커트니와 스티비·원더의「Ebony & Ivory」(흑과백)가연6주째 美國 싱글팝 레코드 차트의 톱을 지키고있다。

이번주 캐시박스 선정 톱팝에 따르면 지난주 3위였던 휴먼·리그의「Don't you want me」가 2위로 부상했고 레이·파커·주니어의「The other woman」(지난주2위)이 3위로 떨어져 2위와 3위가 자리바꿈을 했다。이번주 톱텐팝에 새로 끼인 곡은 하나도없다。

한편 컨트리 웨스턴 싱글 차트의 톱은 지난주4위였던 돈·윌리엄즈의「Listen to the radio」가 차지했다。【AP】

아담·안트의 英 싱글차트톱

★…지난주 4위였던 아담·안트의「Goody two shoes」가 2주동안 톱을 지키고 있던 그룹 매드니스의「House of fun」을 제치고 영국 베스트셀링 싱글차트의 톱에 올라섰다。아담·안트는 최근 아담밴드로부터 따로 떨어져 최근 솔로로 독립、인기를 모으고 있다。【AP】

스파체크 솔로音盤 첫아기의 出生기념

★…광부의 딸이라는 영화에서 컨트리·싱어 로레타·린의 역할을 맡아 노래도 직접 부르고 아카데미상까지 타낸 시시·스파체크가 첫 솔로음반을 곧 내놓는다。(사진)

32세의 스파체크는 첫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레코드를 출반키로 계약을 맺었는데、이번에는 역시 컨트리음악을 수록할 것같다。

英 클리프·리처드 데뷔25년 기념공연

英에 외설비디오 테이프 안방극장까지 침투 골치

【이코노미스트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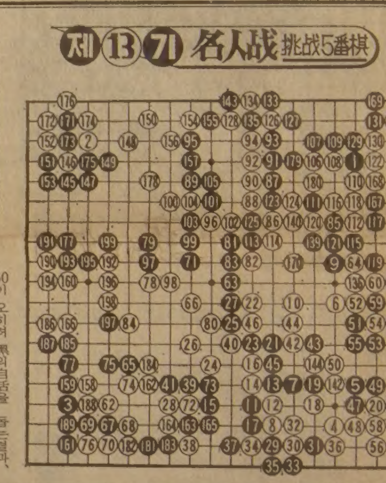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1局總譜 199手完 黑不計勝

白(挑戰者)徐奉洙〈1敗〉

黑(名人)曺薰鉉〈1勝〉

(각5시간·덤5집반)



曺名人 先勝

流星의 賊 〈412〉

李炳注作 李友範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0〉

朴婉緖作 金光培畵

응달 ⑳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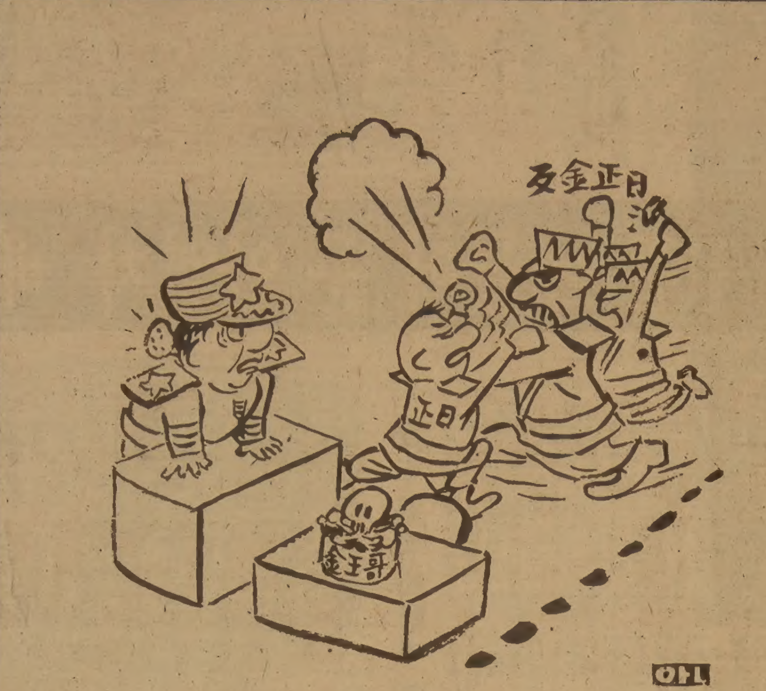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섭 時事 칼럼

개와 원숭이도 싸우고…끼리끼리도 싸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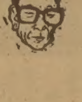


잔나세끼가 왕이 된다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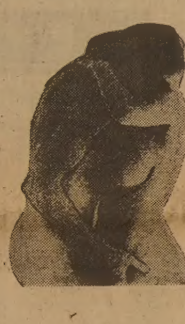
海外걸작漫畵

『자니, 자네가 결혼해서 한여자와 정착하게돼니 기쁘군。』
"Johnny, I'm so glad you're married and will settle down with just one girl."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⑥



●시간 예술 그 소리

소리 공포증이 있다. 구멍 공포증과 비슷한 거다. 사르트르선생 「존재와 허무」라는 책 속에는 갖난 아기가 입 속에 자기 주먹을 자꾸 쑤셔 넣는 작업과 늙어 무덤 구멍에 우는 공포를 직결시키고 있다. 그 중간 저네 사는 동안 남과 여는 하고한 날 구멍을 메우다 간다.

진시왕이나 의자왕 같은 이들은 3천궁녀를 거느렸다. 몽구트왕은 9천을 거느렸다고 한다. 구약을 보면 다윗왕과 미녀 파떼시바 사이에 탄생한 지혜와 총명으로 으뜸 가는 솔로몬왕은 7백명을 마나님으로 거느린 기록이 있다.

최근세사에 속하는 브링엄·영 같은 미국분은 27명을 거느렸다. 그 반대로 영국 데레사 여왕같은 여성은 60여명의 남편을 거느렸다고 한다. 하기야 북아프리카의 여왕 하나는 4백여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산 기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인간이 지니고 사는 구멍집착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비례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혜와 총명이 가장 뛰어난 솔로몬왕 경우는 마나님 7백명에 플러스 세컨트가 3백명으로 따로 기록되어 있다.

천을 거느리고도 끝내는 흙 한줌이다. 그래서 솔로몬왕은 헛되고 다시 헛되나니 태양밑에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전도서를 썼다.

그런데 그 당시 녹음기 부재로 소리에 대한 고증이 없다. 그런때 우리 고금소총을 보고 있으면 소리 공포증 기록이 대여섯 가지 나온다.

무언형, 등산형, 엄마 아버지형, 대화형, 증오형, 지게형, 반역형 등이다.

옛날 봄놀이하던 여러 선비가 산사(山寺)에 모여 우연히 마누라자랑으로 갑과 을을 정하지 못하더니 결에 지나던 늙은 중이 고요히 듣고 있다가 길게 탄식하며 가로되—여러분 높으신 선비들은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를 거두시고 모름지기 내 말씀 들어보시오.

소승은 소시 적에는 한다하는 한탕이었지요. 처가 죽은 후 재취하였더니 재취가 어찌 고운지 차마 잠시도 떨어지자 못하고 다정히 지내다가 마침 되놈들이 처들어와 크게 분탕이라 사랑하는 아내한테 빠져, 놓히 창을 잡아 앞으로 달리지 못하고 처를 이끌고 도망치다가 말탄 되놈에게 붙잡힌바 되었는데 되놈이 처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승을 장막아래에 붙잡아 매고 처를 이끌고 들어가서 함께 자거늘 깃대와 북이 자주 진하매 운우(雲雨)가 여러번 무르익어 남자도 좋아하고 계집은 기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매우 더럽더니 밤중에 계집이 되놈 장수에게 본부가 곁에 있어서 마침내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기 곤란하니 한 칼에 죽여 없애는 것이 어떠하오 하니 네 말이 옳도다 좋아 좋아 하고 다시 지게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소승이 이에 그 음란한데 분통이 터진 데다가 또한 이 말에 놀라 있는 기운을 다 비틀어 짜내어 팔을 힘껏 떼보니 매어 묶은 끈이 다행히 끊어지는지라 청룡도를 훔쳐 바로 장막 안에 뛰어 들어 남녀를 함께 벤 후에 몸을 빼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치의를 입어 구차히 목숨만은 보존하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소.

이로 말미암아 말 하건대 여러 높으신 선비님들의 여편네 자랑을 어찌 가하다 믿을수 있으리오하니 여러 선비들이 무연히 말이 없었다 라는 기록이다.

여기 두 소리를 들을수 있다. 하나는 오르가슴에서 흐느끼는 소리고, 또 하나는 반역형 즉 본남편 죽이라는 소리다. 선비가 도사가 아니라도 여편네가 자기서방 죽이라는 소리를 안주로 발정한 때는 델리라에게 배반당해 두 눈알을 빼고 말 대신 연자방아를 잡던 삼손 정도의 괴력은 나올거다.

우리 선비들이 기록한 대엿가지 되는 말 한마디 없이 보더만 옳지이는 형, 산 오르듯 꿍꿍대는 형, 아버지, 엄마 부르는 P·T·A 노이로제형, 진짜 사랑하느냐 하면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자꾸 묻는 크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의 확인형—이때 안토니오군은 얼마나라는 양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걸레쪽이다—라는 명언을 세익스피어를 통해 남겼지만 죽여 너 죽여하는 증오형등 외도 많다.

요사이는 일어, 영어 통역형, 자거자기를 연발하는 자기형, 아이 좋아형, 여보 여보시오로 일관하는 전화교환양형, 밤열차형등 다양하다. 이형이 가장 처치 곤란한 형으로 되어 있다.

밤열차형은 남성이 가벼운 삼각천 조각위에 와서 정착이 되었다 느끼지 만해도 먼데서 기적이 울리는게 아니라 그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고장난 지·엠·씨 트럭 경적같이 있는 소리 다 낸다.

삭월세나 전세나 남의 집 사는 이 아내로서는 약간 수줍지만 그 일이란 고상이고 나발을 따지기보다 드밀을 따지는 면에서는 실로 명기다.

가장 좋은 형은 합격형이다. 파히 합격선을 돌파 못한 때도 합격, 합격, 소리쳐 주면 그 다음 피아노 연주 때는 진짜 합격되는 거다.

가장 처치 곤란한 형은 무안형이다.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남성이야 이게 뭐야… 이런 소리는 남자의 비교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 소리는 제 아무리 무쇠 같은 남성도 서늘해지는 공포증에 걸리고 만다.

모든 남성은 시인이고 센티멘털리스트이다. 그 감상주의의 핵심을 딱 붙들고 이래도 저래도 합격 합격 소리치며 사는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다. <계속>

海外토픽

철도변多産說 재입증、開通후 80~100%증가

대만의 동해안 철도연변 4개 마을의 출산율이 최근들어 88~1백%나 늘어나자 이에 크게 당황, 철저한 원인규명작업을 벌여온 대만 보건당국은 급격한 출산율 상승이 「열차소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건당국자들은 이들 4개 마을의 각 가정을 호별방문、새로 아기를 낳은 주부들을 상대로 질문을 해본 결과 그들로부터 『4년전부터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밤중에 잠을 깨기가 일쑤다. 한번 잠에서 깨고나면 다시 잠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들었다면서 씁쓸한 웃음. 【UPI】

馬聯 국영TV 幹部들 演藝人들에 섹스要求

말레이지아의 국영방송(RTM) 간부와 직원들이 TV출연을 미끼로 연예인들에게 섹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아디브·아담 말레이지아 공보상은 RTM간부나 직원들이 이같은 섹스 스캔들에 관여된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릴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그는 또 이 스캔들에 관해 공식적인 고발이 없어 경찰이 탐문수사만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캘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연예인가 방송관계자 모두가 높은 도덕적 가치기준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강조. 【AP】

印尼 校服自由化廢止 貧富差 흔적 최소화 위해

우리나라에서 교복자유화조치가 실시된 것과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초·중·고교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교복을 착용케 할 방침.

82~83학년도에는 1차적으로 국민학교·중·고교의 1、2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힐 것이라고.

유수프 인도네시아 교육 문화상은 이에 관한 정부의 명·규칙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여기 저기서 제복의무화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제복을 의무화하는 목적은 빈부차의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共】

集團섹스등 實習과제、學生에 리포트提出케

美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롱 비치분교에서 「性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배리·싱어라는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복음주의교파 신도학생들의 격렬한 항의에 따라 동성섹스·집단섹스·혼외정사등과 그밖의 충격적인 실습연구과제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과할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싱어교수는 ▲나체촌방문▲ 이혼재판방청등의 실습과제를 부과한 다음 이에 대한 리포트제출과 함께 분임토의를 하도록 해왔는데 롱 비치분교교수위원회는 복음주의교파학생들의 압력을 받아 싱어교수의 강의를 검토하고 있다는것.

싱어교수는 더욱 「충격적인」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지 말라는 학교당국자들의 지시에 대해 자신의 강의는 「학습경험」으로 학생들의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AP】

◇살아 움직이는 메뉴판

플로리다주 팜만에 있는 트럭 터미널의 식사 손님인 켄·마크씨가 희한한 메뉴판 글씨를 읽으며 즐거운 표정이다. 브래지어와 팬티만 걸친 미녀의 몸에는 「뜨거운 코피」 「소시지」등등 각종 음식이름이 쓰여 있어 여자 몸은 「살아 움직이는 메뉴판」—。팜·피캐틸양(가운데)과 루디·마이어양은 손님들이 『이 집에서 먹을 만한 음식이 무엇이 있냐』고 묻기가 무섭게 그녀들이 걸치고 있는 비치 가운을 벗어젖힌다. 【UPI】

구독신청은 533-2361

신문에 안난 現場

事件기자는 말한다

<취재 放談>

피비린내 나는 세 모녀 피살사건 현장을 달리며 수사진행과 범인체포를 지켜보아온 사건기자들이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이번 주에도 한자리에 모였다. 도끼 살인마에 대한 분노와 인명경시풍조를 목격한 개탄이 쏟아진 자리가 되고 말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같은 엘리트기자들의 불침번아,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한 그리 실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한 주를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 지난 주의 기자수첩을 정리하며 뒤적였다. 부부자해공갈단, 도박경찰, 가짜롤렉스등 그늘진 사회의 단면이 기자의 속필체처럼 어지럽다. 방범대원의 폭행, 채권매매업자의 인분세례등 사건의 연속이다. 32년간 폐속에 박혔던 총탄이 저절로 빠져나온 기분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번 주 사건기자 방담에 참석한 한국일보 사회부기자는 다음과 같다.

▲方旼俊 ▲朴珍列 ▲姜秉泰 ▲鄭在龍 ▲金宗來

잠든 애들이 문 안열자 베란다 타고 들어가다 죽은 家長

3모녀 被殺 도끼殺人魔 "誠實人 못사는 세상"獨白

■IQ138의 犯人

▲A=지난 한 주일은 세 을 냉천동 세 모녀 피살사건 수사본부를 지키느라 고생들이 많았지.

처음 현장정황이나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라는 심증은 갔으나 원한에 의한 것이냐, 취재(取財)를 목적한 것이냐는 쉽게 판단하기 힘든 사건이었어.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경찰은 숨진 李君子씨(39)의 손목시계, 양담배 9갑, 남편 李鍾善씨(43)의 등산용 모자까지 없어진 것을 알고서도 피해품은 카메라뿐이라고 거짓 홍보를 했었지.

취재감각을 흐려놔 보도방향을 딴곳으로 돌리게한 뒤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관의 수사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계산이 작용한것같아 기분이 안좋더군.

▲B=범인 金永泰는 지능지수 138의 뛰어난 머리를 타고 났으나 중학때부터 싸움판과 여학생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는데 몰두했던 불량아 였어. 중학3년때 퇴학당한뒤 본격적으로 「주먹세계」에 빠져 친생활을 해왔는데 태권도(2단), 합기도(1단), 유도·럭비등으로 단련된데다 성품이 포악해 청주시내 주먹들 사이에서도 기피대상이었고 경찰들도 알고 있을 만큼 소문난 불량배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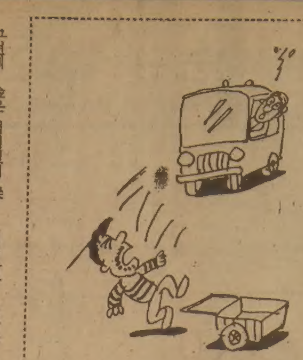
金은 검거당시 어울리지않게 「이성과 감성사이」라는 에세이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실한 사람이 못사는 세상」이라고 쓴 대목이 가장 감명깊었다고 얘기 하더라는거야.

▲C=이번 사건해결에 공을 세워 특진상신된 서대문경찰서의 베테랑 형사인 黃모 경위에 의하면 사건발생 직후 李씨의 장녀 恩受양(14)의, 이웃 친구인 金모양으로부터 『영태 삼촌이 오면 무서워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찌감치 金永泰라는 이름에 집착하게 됐었다고 해.

黃경위는 지난해에 있었던 고려병원 폭파범도 김영태를 잡을 때 뽑아뒀던 컴퓨터 자료에 있는 7명의 「김영태」중에서 이번사건의 범인 金永泰를 찾아내 민완형사인 梁형사를 淸州로 급파했던거야.

한국일보

梁형사는 淸州에서 「쌀가게집 아들로 포터 트럭을 몰고다니는 영태」를 찾아가 金의 집에서 세집 건너 참기름집에서 「김영태」란 청년을 찾아내고 쾌재를 불렀다는거야. 그런데 막상 梁형사가 이 「김영태」를 만나보니 너무나 태연해서 잘못 짚은 걸 알고 당황했어. 허탈해 하는 梁형사에게 이 「김영태」는 곰곰 생각하더니 바로 이웃의 쌀가게집 아들도 이름이 김영태임을 귀띔해 주더라는거야. 梁형사는 金의 집을 찾아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해서 훑어보니 金의 사진이 몽땅 빠지고 없어 범인으로 단정했다고 하더군.



<삽화·權大雄>

그런데 金은 검거된뒤 梁형사가 기자에게 앨범얘기를 하는것을 옆에서 듣더니 『나도 그게 단서가 될줄 알았읍니다』라고 웃음까지 지으며 맞장구까지 쳐 어이가 없더구만.

붙잡힌 金과 丁의 팔뚝과 다리에 상처가 있어 물어보니 범행당시 어머니와 3남매를 마구잡이로 도끼로 내려치다가 빗나가 자신들도 상처를 입었다고털어놓더군.

■관할署·시경엇갈린반응

▲D=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것은 현장에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던 점이 수사에 과연 도움이 됐겠느냐 하는거야.

경찰은 시체를 옮긴뒤에 이·현장을 공개하는등 전에없이 강력한 통제를 폈어.

▲E=뭐라고 해도 이번 사건의 해결은 홍수군(9)에게 있었던거야. 중환자실이라 면회시간이 정해져있었으나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영태삼촌이 왔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야기가 기자들에 의해 보도되자 경찰은 이곳에도 전경을 투입, 다른 환자가족들까지 출입을 금지 당하는 고충을 겪었지.

▲E=이제 끔찍한 세모녀 살해사건이 해결됐으니 다행이지만 해결공적을 놓고 관할 서대문서와 시경측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 시경측은 『강력한 지휘·수사체제아래 단시일에 해결된 본보기』라고 말하는 반면 서대문서의 일부 형사들은 『일선 경찰서의 공적을 시경에서 가로챈것이나 다름없다』며 씁쓸해 하더군. 큰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해결되면 해결된대로 뒷이야기가 생기는것이니까.

▲F=이번엔 부부 자해공갈단 사건좀 털어놓도록 하지.

남편은 교통사고自害공갈 妻는 목격자행세、僞裝도와

서울 성동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자해공갈로 운전기사에게서 20여차례나 돈을 뜯어온 황구성(42·서울 성동구행당동101)과 황의 처 김순식(36)을 구속했어.

경찰조서를 보니까 黃은 지난달 13일 밤10시께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길을 건너면서 미리 면도날로 입안을 찔러 피를 내 머리에 바른 뒤 지나가던 시내버스(운전사 김인수·36)에 일부러 리어카에 부딪치게 한뒤 길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다면서 위자료조로 20만원을 갈취하는등 비슷한 숫법으로 지난80년 5월께부터 지금까지 5백여만원을 뜯어냈다는거야.

게다가 黃의 처 金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사이 부근에 서있다가 경찰관이 나타나면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을 병원으로 안내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등 범행을 도왔어.

세상무섭지, 부창부수(夫唱婦隨)가 자해공갈까지 가다니….

▲C=가짜 여대생 얘기좀 한재.

신문에 안난 現場

서울 성북서는 9일 金모양(19·중구신당4동)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는데 金양은 지난 1일하오3시께 고려대학교 학생회관3층 복음 서클실에 들어가 서랍을 뒤져 현금 15만원을 훔친것을 비롯, 4월부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30만5천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왔다는 거야.

金양이 이같이 가짜여대생노릇을 해가며 도둑질까지 하게 된것은 지난4월5일 고대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느라고 벗어 놓은 동교영어 교육과 1년 徐모양(20)의 상의에서 학생증을 훔쳐 자기 사진으로 갈아붙인뒤 이 증명을 무기삼아, 복음서클 정회원으로 자임, 서클활동까지 하면서 어엿한 여대생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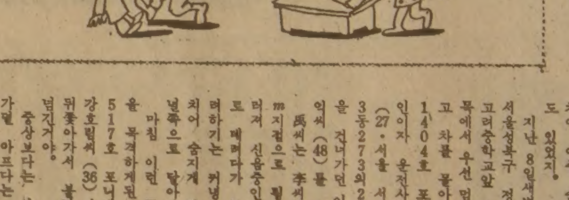
■가래침에 섞여나온 총탄

▲D=지난 주에도 방범대원들의 탈선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

강서경찰서는 경기 부천경찰서 원종파출소소속 방범대원 손순표(31) 임복근씨(37)를 폭행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8일상오2시 방범근무중 서울강서구신월동38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행인 이신호씨(32·강서구신월동140의15)와 마주치자 『[illegible] 늦게 다니시오』라면서 시비를 걸어 대꾸하는 李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어.

방범대원중 孫씨는 지난 80년에도 파출소로 연행한 피의자를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먹질 버릇이 있는 자이구먼.



이들은 방범대원이 주민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간 신월3동파출소 직원들에게 연행되면서도 계속 행패를 부렸어.

방범대원의 고마움도 잊지말아야 겠지만 피해도 있다는게 새삼 느껴지는군.

▲B=오너드라이버가 행인을 치어 쓰러지자, 다시 치어 아주 숨지게한 사건도 있었지.

지난 8일새벽 0시15분께 서울성북구 정릉3동653 고려중학교앞 건너가는 길목에서 우선멈춤을 무시하고 차를 몰아댄 서울4다1404호 포니승용차 주인이자 운전사인 우승진씨(27·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273의2)가 마침 길을 건너가던 이 동네 어원익씨(48)를 치었어.

禹씨는 李씨가 차앞 6m지점으로 퉁겨져나가 쓰러져 신음중인것을 병원으로 데려다가 목숨을 구하려하기는 커녕 다시 한번 치어 숨지게 한뒤 북악터널쪽으로 달아났지.

마침 이런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된 서울4하6517호 포니택시운전기사 강호림씨(36)가 범행차를 뒤좇아가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거야.

중상보다는 사망이 골치가 덜 아프다는 말이 운전기사들사이에 말들된 때가 있긴 했었지만, 끔찍하고 잔인할 일이었어.

과실치상범으로 끝날 사건을 스스로 살인범으로 몰아간것이지.

▲A=32년동안 환자의 폐속에 박혀있던 소총탄알이 가래침에 섞여나온 해외토픽거리 화제가 있었지.

지난달 29일 인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국립원호병원 일반외과에 입원중인 박서담씨(51·경기도 성남시 창곡동59의8)는 갑자기 기침을 하다가 마침 제거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한 폐속의 탄알이 튀어나와 30년묵은 고질을 기침 한번으로 깨끗하게 치료하게됐어.

朴씨는 지난50년7월 경북 영천전투에 참가했다가 북괴의 AK소총에 맞아 탄알이 폐속에 박혔으나 그대로 지내오다 최근에는 폐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어.

수술담당의사는 『염증으로 인해 폐에 구멍이 생기고 탄알이 그 구멍을 통해 식도로 나온것 같다』면서 기뻐했으며 당사자 朴씨는 『내가 뒤늦게 신학대학에 재학중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것』이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자가 되겠다고 눈물까지 흘렸지.

▲B=서울 영등포서는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인 정보과소속 홍창원경장(34) 김여학순경(38) 나원일순경(34) 곽정식순경(36)등 4명을 파면조치했지.

이들은 지난달 31일하오1시께 근무처에서 나와 경찰서부근인 영등포동 정화여관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인데, 경찰이 죄를 짓고 시민들이 붙잡게하는 이상한 세태가 걱정이야.

高大학생증 훔쳐 가짜女大生노릇

잇단防犯隊員탈선、이번엔 주민 폭행

行人치고 또 치여 죽게한 운전사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妾이씨앗본다던가…

▲E=서대문서 관내에서는 술집웨이터가 호스티스를 맥주병으로 찌르고 유치장으로 간 일이 있었지.

지난9일0시3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326의12 뉴스타살롱에서 이집 종업원 정원교씨(24)가 자기집의 종업원인 박정민양(20)의 오른쪽 팔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어.

폭력전과가 한번있는 정은 朴양과 눈이 맞아 2개월간 동거해오던 중이었는데 평소 손님에게 친절한 박양의 태도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일을 저지른 거야.

속담에 「첩(妾)이 시앗본다던가…」하는 말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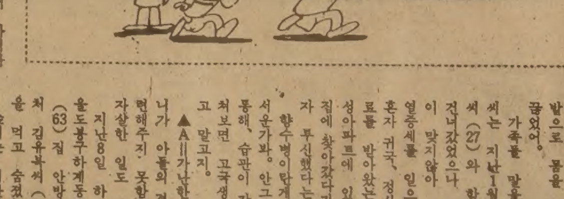
▲F=9일 새벽에는 노점상을 하는 40대 가장이 잠든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의 베란다를 타고 자기집으로 들어가려다 떨어져 죽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지.

서울동대문구장안동 장안시영아파트 508호에 사는 유연호씨(43)가 부인 박우선씨(43)와 함께 장사를 끝내고 새벽에 귀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5m높이의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들어 가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거야.

왜들 느긋해야 할때를 가리지 못하고 허둥대는지.

▲D=외국에 건너갔던 주부가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 귀국한뒤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지.

지난 7일하오6시께 서울강남구서초동 우성아파트 21동6층 베란다에서 조씨(여·22·관악구사당동449)가 10m아래 잔디밭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어.



가족들 말을 들으니 조씨는 지난1월 남편 정모씨(27)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었으나 언어와 풍습이 맞지않아 심한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지난4월 혼자 귀국,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날 우성아파트에 있는 언니(32)집에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자 투신했다는 거야.

향수병이란게 그토록 무서운가봐. 안그렇겠어. 말이 통해, 습관이 같아, 막상 닥쳐보면 고국생각이 간절하고 말고지.

▲A=가난한 집의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주지 못함을 비관하고 자살한 일도 있었지.

지난8일 하오3시께 서울도봉구하계동70 이종남씨(63)집 안방에서 이씨의 처 김유복씨(63)가 극약을 먹고 숨졌는데…

金씨는 지난5일밤 둘째아들 이모씨(30)가 평소 사귀어 오던 여자를 집에 데려다 결혼시켜달라고 했으나 결혼자금을 마련할 길없어 고민했다는 것이지.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하고 결혼자금은 마련할길 없고, 모정은 괴로왔겠지만, 딱한 일이었지.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자살을 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구만.

▲C=서울형사지법 북부지청에서는 가짜 롤렉스·오메가시계제조범 일당7명을 검거했지.

압수된 시계를 보니까 우리같은 아마추어들은 가짜같아 보이지 않았어. 수사관이 시계속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조잡한 부속품을 구별할수 있었어.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고급외제시계를 하도 찾아 이같은 가짜시계가 4년간이나 버젓이 나돌았다며 우리나라에선 롤렉스나 오메가를 안사는게 안속는거라고 말하더군.

불어로 된 보증서까지 감쪽같이 위조했는데 우리눈으로는 진짜보증서와 구별이 안되니 소비자들이야 속기 십상이지.

▲E=강남서관내에선 채권업자들사이에 인분세례사건이 있었지.

중구을지로2가18의9 김정만씨(28·채권매매업자)는 지난9일 잠실4동소재 잠실전화국앞에서 동료채권업자 김경며씨(여·34·성북구종암동105의206)가 전화청약자들로부터 구입한 채권을 자기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인근주택가에서 가져온 1ℓ 가량의 분뇨를 金여인의 얼굴과 옷등에 끼얹었지.

피해자인 金여인은 경찰에 달려와 『김의 일당이 7∼8명이나 되며 이들의 행패때문에 여자채권업자들은 이익을 남기지도 못한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들에게 넘긴다』고 흥분하면서 처벌을 호소했어.

약한 여자들을 울리는 채권업자들의 베일에 싸인 내막을 기회있으면 한번 파헤쳐봐야겠어.

<기록·정리 黃升演기자>

향수병 걸린 主婦,귀국후 투신자살

가난한 母親,아들 婚費못해줘 자살

약한 女人에게 분뇨 뿌린 채권업자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인생이란 두글자>

쓰다보니 과연 0에서 시작되어 0으로 끝나더라.

金 (土月文友會)

<무더위가 유죄>

노 팬티가 서운하다는 말을 듣고 양품점에 찾아와서 노팬티 하나 주세요 하더라.

—순진한 처녀— 하미경(전국낙서문화회)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저소득일수록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봐요.』

王三晶(土月文友會·여름호회보 원고접수중 ☎4088)

<나를 슬프게 하는것>

말썽많은 연예인 가슴에 달린 십자가 목걸이.

허소연

지금 웃는중

落書

<그 마누라 도망갈만 하군>

집을 나간 제 마누라를 찾아주는 분께는 마누라를 며칠간 빌려 드리겠읍니다.

—열간이 남편—

<자가용 없는 죄>

토큰없어 함께 내는 벌금 30원

김선동(土月文友會)

<긴급동의>

약속어음용지에다 [illegible] 적어 넣었으면 합니다.

잠웅(한국낙서회)

★<백억 / 천억?>

한국의 화폐단위가 언제 원에서 억으로 바뀌었읍니까?。

—장여인 사건후—

미국시카고에서 최영여

<재수 없는 날>

한송이 (수원시 세류2동343 십우주택 6동102호)

<내 키가 안큰 이유>

무슨 구경거리가 있다하면 꼽싸게 와자리만 차지하며 크다보니….

염주와 고흔아(土月文友會)

<나도 당원이다>

예배당을 다녀와서….

주염준(흑싸리 쭉디기)

<마라톤 인구 저변확대 위한 구호>

정력증진에 마라톤이 좋습니다.

王三晶

<젠 장>

동전이 아니고 이건 10원짜리 집한소로군.

—걸 인— 미소(土月文友會)

<서울한복판의 누드촌>

신세계앞 분수대.

王三晶(☎4088)

<미혼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찬사>

맏며느리가 되고자하는 미혼여성이 어디 있다고 예쁘고 며성스럽게 생긴 처녀에게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합니까?

—미혼여성연합회—

金天國(秋木·성동구사근동191의4)

<희비 쌍곡선>

방안에선 아내가 세쌍둥이를 해산하고 외양간에선 암소가 세쌍둥이 암송아지를 낳았다.

—자식 많은 집—

물레빵(물레방울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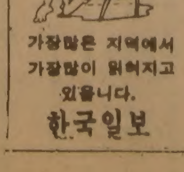
<오른빰을 때리거든>

반쪽여 놓아라

김선엽(土月文友會)

<아들같은 남편>

마누라에게 칭찬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남편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261>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otel에서

hotel 방을 예약할 때는, 전화나 혹은 hotel front desk에 직접 찾아가서 방이 있는지를 알아보게된다. 혼자 투숙하는 경우「1인용방이 있읍니까?」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은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이며 이때의 available은 「이용할수 있는」의 뜻.

그러면 대개 종업원이 When are you cheking in? (언제 투숙하십니까?)이라고 물어보고 이쪽에서 투숙일자를 알려주면 방이 있는지를 확인한후 방이 없는 경우는 I'm sorry we're all booked up. 이라거나 I'm sorry, but we heve no vacancy. 와같이말한다。방이 있을때는 For how many nights, sir? (며칠밤이나 주무실겁니까?) 라고 묻는다。

만일 월요일밤부터 토요일아침까지 호텔에 머물예정이면 I'd like to stay five nights. Checking out saturday morning. 이같이 말해주면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호텔의 check out 은 12시이나 그이전에 나가도록 해야한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 볼일이있는 경우는 front desk에 전화를 걸어서「내일아침 6시에 좀 깨워주시겠어요?」라는 부탁을 하고싶을때는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at six? 라고 하면 된다。일단 부탁을 받으면 hotel 측에서는 다음날아침, 그시간에 부탁한 투숙자의 방에 전화를걸어 깨워주게된다。

May I help you?
Yes,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When are you checking in?
Tonight.
For how many nights, sir?
I'd like to stay five nights.
I'm checking out saturday morning.
※check in:호텔에 들다。
check out:계산을마치고 호텔을 떠나다。
【발음】Saturday:t가d로 유성화되었다가 다시 우리말 ㄹ로 변한다。【새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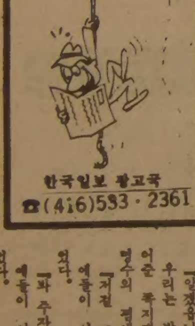
SOMEONE BROKE INTO MY TRUNK.

친구집에찾아갔다가 나와보니 차의 뒷트렁크 lock(자물쇠)가 구멍이 뚫려있다。분명히 길가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가 spare tire (예비타이어)를 훔쳐가려고 자물쇠에 구멍을낸것이다。(punched out the lock) 911 (범죄대책으로 시카고에 특설된번호)를 돌려서 경찰이 나오기에 I'd like to report a theft. Someone broke into my trunk. (도난사고를 신고합니다. 누군가가 내차 트렁크를 침입했읍니다)라고 하였더니 What's the address? (주소가 어디입니까?)라고하여 대주었더니 We'll send someone right over. (곧 경찰을 보내드리지요.)라고 하였다。

이같이 도둑이 침입하는것을 나타낼때는 break into의 용법을 사용한다。「누군가가 내차 트렁크를부수고 스페어 타이어와 잭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Someone broke into my trunk and took my spare tire and jack. 이라고 한다。「우리 아파트에 침입하여 3,000불 상당의 보석을 훔쳐갔다」라고 보고할때는 Someone broke into my apartment and stole 3,000 dollars worth of jewelry. 라고 하면된다。

A : Chicago Po'ice.
B : I'd like to report a theft.
A : What happened?
B : Someone broke into my trunk.
A : Anything missing?
B : I don't know. I can't get it open.
A : 시카고경찰입니다。
B : 도난사고를 신고합니다
A : 무슨사고인가요?
B : 누군가가 내차의 트렁크를 침입했읍니다。
A : 도난당한 물건이있읍니까?
B : 모르겠읍니다。트렁크를열수가 없읍니다。
※break into:침입하다。theft:절도죄。도둑질。
【발음】I'd like:「아잇라잌」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한국일보 광고국
☎(416)583·2361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9

정릉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서 내렸다. 발길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많았다. 약수를 뜨러가는 부인네들과 메이트족이 어울려 산길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상없어요.』

마중나온 녀석이 말했다.

『도망갈 만한 길 없니?』

『이 길 아니면 산으로 튀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잘 지켜라. 한번 튀면 끝장이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흰 와이셔츠 차림의 종업원들이 따라 붙었다.

『식사하실 건가요, 주무실건가요?』

『술 한잔합시다. 자리 좋은 데로.』

『방갈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합시다.』

지난줄거리

강남지역에서 박명수란 사내를 봤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총찬은 L호텔로 자리를 옮기고 놀부네 꽉치에게 상황을 들었다. 꽉치는 박명수의 거동을 아는듯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도망갔다. 총찬은 꽉치와 점사를 벌이며 박명수가 탤런트 연미희와 돌아다닌다는걸 확인했다. 미행 끝에 정릉 산장에 투숙한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고 급히 달려갔다.

우리가 자리잡자, 종업원들은 술상을 내왔다. 전망이 좋은 계곡의 초입에 이렇게 아담한 산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

『후딱 해치우죠.』

애들이 다급 했든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안돼 시간을 좀 풀어야지.』

『튀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잖아.』

『주먹이 근질거려 미치겠어요. 저런 자식은 뼈를 추려 내야 하는데….』

『연미희, 그 친구 체면 좀 세워줘야지. 재일교포 청년 실업가에게 속아서 몸 뺏기고 돈 빼앗겼다고 소문나 봐. 우리가 그런 건 지켜줘야잖아.』

『밤 늦게 시작한 겁니까?』

『순순하게 잡혀준다면야 지금이라도 끌어 낼수 있지만…저런 녀석일수록 국적이 일본이니, 국제법이니 따져댈 거란 말이다. 까짓거, 시끄러운 거야 주둥배기 봉하면 그만이지만 연미희 그 계집애를 거덜낼 순 없잖아.』

『그런 속 빠진 계집애를 뭐러 보호하려고 그래요?』

애들은 그 점이 불만인 모양이었다. 시집 잘 가려고 몸부림치는 탤런트라는 사실이 싫은 눈치였다. 재일동포 청년실업가라는 한마디에 예쁜 여자들이 몸을 꼬는게 나도 싫긴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연미희까지 창피를 주고싶었다.

그러나 차마 한꺼번에 몹쓸 인간으로 취급하기는 싫었다. 속아 넘어간 연미희가 아무리 화냥기가 있더라도 보호해주고 싶었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정릉 계곡의 사람들은 많이 줄었지만 은밀하게 데이트하는 연인 숫자는 줄지 않았다.

『안되겠다. 점산으로 빼자.』

나는 시계를 들여다 보고 이렇게 말했다. 술상에 남아 있던 술을 마저 비우고 우리들은 일어났다.

『저 방이 확실하지?』

『몇번이나 확인한 겁니다.』

『넌 술값 낸 뒤에 조금 시끄럽게 굴어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해. 넌 말리는 척하면서 같은 장단을 쳐야 돼. 그 사이에 내가 끌고 튈테니까.』

그런 일을 농사로 해낼 수 있는 애들이었다.

두 녀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먼저 내려갔다. 일부러 술 취한 척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한 녀석을 데리고 재빨리 산장 옆으로 숨었다.

불 꺼진 방에선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들려 나왔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퍽 정다와 보였다.

나는 구두를 신은 채 복도 끝방으로 갔다.

『누구야?』

노크소리를 듣고 사내가 물었다.

나는 잠깐 뜸을 들이고 대꾸했다.

『잠깐 나오셨는데요.』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옷을 입는 눈치였다.

『죄송합니다.』

옆에 섰던 녀석이 더 능청을 떨었다. 방문이 빼꼼 열렸다.

『욱!』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명치 끝을 정확하게 때렸다.

『어마!』

계집애 목청이 째졌다. 바깥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방갈로 쪽엔 관심도 없었다.

불을 켰다. 연미희였다. 홑이불 자락을 뒤집어 쓴 채 머리만 내밀었다. 홑이불을 와락 벗겨냈다.

잠깐 눈이 부셨다. 텔리비전에서 보았던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 금방이

그걸 우리나라에선 놀구 있다고 한다, 더 놀게 해주마
너같은건 난지도 쓰레기더미에도 묻힐 자격이 없는놈

라도 농익은 육체가 터질 것 같았다.

『옷 입어. 빨리!』

연미희는 재빠른 동작으로 옷을 추스렸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저 보드라운 헝겊조가리를 걸치는 행위였다.

『소리 치면 너만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연미희의 턱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나면 넌 끝장나는 거다. 얌전하게 따라와. 곱게 보내줄테니까.』

연미희는 녀석이 끄는대로 따라나갔다. 박명수가 꿈틀거리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나는 한방 더 갈겼다. 이 자리에서 말씨름할 시간이 없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한 곳까지 끌고 올라갈 참이었다.

박명수를 끌고 울타리를 넘었다. 바로 정릉 계곡과 연결된 산이었다. 앞서 가던 녀석이 작은 플래시를 비추며 방향을 잡아 주었다. 산장에서 시끄럽게 굴던 녀석들도 플래시 불빛을 확인하고 내려간다는 휘파람신호를 보냈다.

한참만에 박명수는 저항의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연미희는 아무말 없이 앞서 걸었다.

『그만 가자.』

내 말에 앞섰던 녀석이 평지를 골라 멈추었다. 박명수가 잡힌 팔목을 풀려고 몸을 꼬았다. 약간 늦추어 주었다.

『당신들 누구요?』

『대한민국 청년이다.』

『왜 이러는 거요? 대한민국엔 법도 없소?』

『너 말 한번 잘했다.』

박명수가 정강이를 잡고 데굴거리며 굴렀다.

『여긴 소리 질러봐야 너를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는 산중이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걸로 네 더럽고 치사한 인생도 끝장이다.』

『대체 왜 이럽니까? 뭣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우린 친절하게도 그런 정도는 일러주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잘 들어라. 귓구멍 크게 열고. 네가 재일교포 청년실업가란건 안다. 그걸 미끼로 여자들을 울리고 돈까지 갈취하는 사기꾼이란것도 말이다. 그래서 같은 동족의 피를 받고 태어난 새끼가 일본물 먹으면 얼마나 비굴해질수 있는지 분해해 보려고 데려왔다.』

『뭐라구요?』

녀석은 갑자기 떨었다.

『별거 없다. 너도 실험동물이란 소리는 들었을거다. 우린 널 분해해서 네가 사기꾼이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거니까.』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난 조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조국에서 결혼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걸 우리나라에선 놀구 있다고 한다. 더 놀게 해주마.』

나는 사정없이 걷어찼다. 박명수는 내 응어리의 샌드백이었다.

『이 거지도 안주워 갈 새끼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더냐? 쪽발이들한테 고자 배워 처먹은 게 그거냐?』

박명수가 내 바지를 잡고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줄 것 같으면 끌고오질 않았다. 너같은 건 난지도 쓰레기더미에도 묻힐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명수는 뒹굴면서도 악착같이 내 바지를 잡고 늘어졌다.

『연미희, 이리 와봐.』

나무 밑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던 연미희가 내려왔다.

『이 앞에서 말해라. 네가 둥쳐먹은 여자가 누구누구인지.』

박명수가 머뭇거렸다. 나는 구두를 벗어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 붙였다. 녀석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살려 주시면 무슨 짓이고 하겠읍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고 싶으면 죄 불어 봐.』

다리를 꺾어 앉혔다. 녀석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저, 가수 명인희하고….』

『또.』

『살롱 하는….』

『또.』

『없어요. 정말예요.』

『쪽발이 밑이나 핥을 자식.』

박명수가 고꾸라졌다. 나는 허리띠를 풀어 녀석의 다리를 죄어 나뭇가지에 걸었다. 그리고 정말 샌드백처럼 두들겼다.

『서유리 알지?』

『예에.』

『얼마 빼먹었냐?』

『몰라요. 아파트하구….』

『몇명이나 알겨 먹었냐?』

『잘 몰라요.』

『좋다, 하두 해처먹어서 숫자도 모르겠지. 그 돈 다 어쨌냐?』

『…….』

『이 더러운 자식아. 쪽발이들이 판칠 때도 조선사람 잡아먹는 조선놈이 설쳐대더니 너같은 놈은 그것보다 더 악질이니까 아예 뼈를 추려서 이 산중에 있는 동물들한테 선심이나 쓰겠다.』

정신없이 나뒹굴던 녀석이 숨을 끌고 뒤로 누웠다.

『살려줘요. 말할께요.』

『큰소리로 똘똘하게 말해라. 작은 소리로 지껄였다간 불이 해얏테니까. 난 귀가 어둬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

『말할께요. 제발.』

박명수는 거품을 북적거리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몇차례 더 곤혹스런 장면을 연출한 뒤에 박명수는 여자들을 둥쳐먹은 내역을 털어 놓았다.

『그 돈은 어디 있나?』

『일부는 여기 은행에 있구요. 일부는 일본으로 보냈어요.』

숱한 여자가 박명수에게 넘어갔다. 돈이 좀 있게 생긴 여자들만 골라 일본으로 데려간다는 조건을 내세워 알량하게 빼먹은 것이었다. 할 때마다 숫법이 달랐다.

『일본엔 누구누구하고 사나?』

『…….』

『마누라하고, 새끼는 몇명이나?』

『아들 하나와 딸 하납니다.』

『네 딸년이 그 지경으로 당해도 시시덕거릴 참이냐?』

『아뇨.』

『마누라는 한국 여자냐?』

『일본 여잡니다.』

박명수는 더 버틸 기력도 없었다. 내가 묻는대로 주절주절 대답을 했다. 연미희가 흐느끼고 있었다.

『저 여자한테 알겨먹은 돈은 얼마냐?』

내가 연미희를 가리켰다. 박명수는 고개를 겨우 들었다.

『이천만원입니다.』

연미희가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박명수의 아랫도리를 걷어찼다. 비명을 지르며 계곡으로 굴렀다.

『네 발로 기어와라. 빨리!』

박명수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왔다.

『돈은 찾아주겠소. 저 자식한테 속은건 잊어버리쇼. 다시는 속지 좀 마십쇼.』

『네.』

작은 소리로 대꾸했다.

『저 자식을 어떻게 알게 됐소?』

『여의도 황마담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처음에 뭐라고 합디까?』

『재일교포고 사업가고, 고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우선 사귀어나 보라고 했어요.』

『황마담이라면 아파트에서 비밀요정하는 여자 말하는 거요? 왕년에 배우노릇했던 예편네 말요?』

『맞아요.』

『그 여자가 소문대로 신임을 펴고 흔드는 여잡니까?』

『…….』

연미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박명수가 괴로운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가씨는 먼저 내려가요.』

연미희는 내가 시키는대로 녀석을 따라갔다.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별로 살려주고 싶은 맘이 안생긴다. 너같은 놈 살려주면 염라대왕한테 혼날테니까.』

『다시는 이런 짓 안하겠읍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냥 살려달라는 거냐?』

『하란대로 다 하겠읍니다.』

『약속할 수 있나?』

『맹세하겠읍니다.』

박명수가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비볐다.

『파리한 놈이 그렇게 잘 빌더라. 너같은 놈은 선량한 재일교포들한테 평생을 그렇게 빌어도 모자랄 놈이다.』

『살려만 주시면 무슨 짓이든 하겠읍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네 집으로 가자.』

『예에.』

『나한테 수 틀린 짓하면 그 자리서 염라대왕한테 보내겠다. 눈깔 똑똑하게 뜨고 봐라.』

나는 표창을 꺼내 박명수의 양쪽 구두 코를 정확하게 꽂았다.

『제발….』

『앞장 서라.』

박명수는 잘 걷지 못했다. 뒤뚱거리며 계곡을 내려갔다. 계곡 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손을 흔들었다.

『됐읍니까?』

『그래. 차 잡아와라.』

애들이 뛰어가서 택시를 잡아왔다.

밤 열두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얌전하게 타라. 내 말 명심하고.』

박명수가 힘들게 뒷자리에 탔다.

하나님.

차마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거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체면 문제니까요.

H아파트 12층에서 내렸다. 박명수는 문을 따고 들어서더니 침대 위에 고꾸라졌다. 금고 열쇠를 내놓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금고를 열었다. 여러가지가 쏟아져 나왔다. 은행의 저금통장 속엔 내가 상상할수 없었던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다. 금붙이와 보석류도 꽤 많았다.

『이게 전부 해먹은 거지?』

『네.』

『몇년 됐나?』

『삼년 됐읍니다.』

『일본에서 무슨 짓 했냐?』

『고물상하다가 망했읍니다.』

『너같은 놈은 고물로 팔아 치웠어야 하는 건데.』

나는 집안을 죄 뒤져 일본의 본처와 오고 간 편지봉투를 찾아냈다.

『일본에 있는 네 마누라한테 자세하게 통보해 주마. 한국에 와서 사업한답시고 여자를 둥쳐먹은 걸 그대로 알려주마.』

내가 뒤주가리를 한대 갈기며 이렇게 말했다.

『제발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읍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일본으로 빼돌린 돈을 무슨 재주로 찾나 어 말해라.』

『당장 제가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하겠읍니다.』

『무슨 재주로 한단 말이냐?』

『여기서 사업 확장한다고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됩니다.』

『그럼 당장 전화해라.』

『그러면 봐주시는 거죠?』

『그렇다. 난 약속을 지킨다.』

박명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로 전화를 끝냈다.

『보낸답니다. 꼭 보낸다고 했읍니다.』

『만약 허튼 짓했다간 일본에 있는 내 친구들 시켜서 너를 박살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박명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다. 내 손아귀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다. 애들이 통장과 도장을 챙겼다. 박명수는 비밀번호와 은행의 위치까지 적어 놓았다.

『날 고발하면 네 신세가 끝장난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니까 용서하려는 거다.』

『압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나간 애들이 돈을 찾아가지고 왔다. 일본에서 보내는 돈은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되돌려 받기로 했다.

『이 명단 믿어도 되겠지?』

『이 마당에 거짓말 하겠읍니까? 믿어주세요.』

『좋다. 이걸로 입원이나 해라.』

나는 현금 뭉치에서 한 다발을 내줬다. 박명수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자.』

박명수는 문을 열어주고 꾸벅거리며 절을 했다. 애들이 그런 박명수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었다.

『우리나라 여자 둥쳐 먹지 마라. 쪽발이년들이든 양코배기년들이든 살아 먹는 건 내 말 않는다.』

『알겠읍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박명수가 적어준 쪽지대로라면 열명도 넘게 박명수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저걸 그냥 살려줘요?』

애들이 아파트를 올려다 보고 물었다.

『봐 주자. 그 놈도 내 핏줄이다.』

애들이 아무 말없이 침을 찍 뱉었다.

<다음호에 계속>

박명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다
하나님도 할말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 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총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경험있는 Shirt 재봉일 하실분 구함.
(Finch & Dufferin 지역)
전화 : 665-83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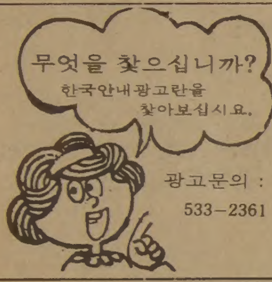
지렁이 잡으실분. 유경험자 최고가격
전화 : 245-1694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유 경험 웨이트레스 구함.
희망자는 460 Dundas St. W.로 내방바람.
(3:00 p.m.이후)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유경험자)
미시사가 론·팍(Lorne Park)지역
전화 : 278-8101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18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광고문의 :
533-2361

구 직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 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건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Variety & Grocery Store with 3 Bedroom Apt.
High Park지역. 정원과 차고와 개인차도 있음.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산뜻한 가게로 지하실이 크고 넓어, 다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대단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음. 주인이 Canada를 떠나는 관계로 급히 팔고자함. 스탁은 꽉차 있음.
아스킹 : $139,000+스탁(그중 $50,000은 Cash). 불개지 : 15%
A.E.LEPAGE (ONT.)LTD.
Mrs. Ryerson 전화 : 537-3431

1) Building for Sale
아래층 세준 곳에서 $900/m. 수입
이층에는 4 Bed Room Apt. 621 Bathurst St.
2) Corner에 위치한 Building & Business for Sale
주매상 : $3,800(일요일은 쉼) 이층은 3 Bed Room
(Landsdown & Queen St.)
3) Danforth 와 Broadview에 있는 남성 양복점 Sale
아스킹 : $15,000
Canada Permanent Real Estate Co.
전화 : (B) 481-3443 (Paul Kim · Soula St. Jean)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많은 교통량이 있으며, 특이한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에 위치한 최고의 Condition을 구비한.
2층 벽돌건물에 딸린 Store와 Apt매매.
8월부터 입주가능함.
1st Mortgage at 15%: $120,000
Cholkan & Co. Ltd., Realtor.
전화 : 763-5555 Doris Burda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Donut Shop 매매.(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급매.
주매상 : $4,500+로타리오(3 Bed Room 포함)
리 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3,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도 구입 가능(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Sandwich Take Out Business for Sale
토론토대학 맞은편 (656½ Spadina Ave.)
관심있으신 분 오셔서 Bernadine을 찾으세요.

Store 장비 팝니다.
캐쉬 레지스터, Scale(저울), Shelf 등등.
전화 : 249-9773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 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하우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 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알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

설립 기념사은대매출

기간 : 82년6월25일~82년12월25일까지 6개월간

신록이 싱그러운 소망의 계절, 교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한인구매주식회사는 설립기념 스페시알(특가 대매출)을 실시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사발행 영수증을 모아 가져오시는 고객에게 아래 상품을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CASH REGISTER TAPE
(영수증) 모아오세요.

쌀 D.Y. 가주미

일본라면

가도야 참기름

영수증을 모아 무료로 교환

400달러 영수증에 -------- 50Lb 쌀 1포
300달러 영수증에 -------- 가도야참기름 1Gal —1캔
200달러 영수증에는 -------- 일본라면 24봉 1BOX

SPECIAL 품목

쌀	50Lb	15.95	~~17.95~~
메주가루・엿기름가루	1Lb	1.99	~~2.79~~
회조개 깐것	2.2 Lb	7.95	~~10.95~~
낙 지	2.2 Lb	7.95	~~9.95~~
햇김 100장		10.95	~~14.95~~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7월1일 개업)	1391 Weston Rd.